
6411 버스 첫 승객 분석을 통한 청소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연구

2020. 12.

노회찬재단

6411 버스 첫 승객 분석을 통한 청소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연구

연구자: 신희주, 신현기, 노현석

목차

1장. 6411 새벽버스 연구를 시작하며

2장. 6411번 첫차를 타는 사람들

1.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가
2. 그들은 어디서 타고, 어디로 내리나
3. 언제 가장 붐비고 어디서 내리나
4. 그들의 하루
5. 서울의 6411번 버스들

3장. 6411 첫차 승객들의 노동

1.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 1) 높은 비정규직 비율
 - 2)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청소원
 - 3) 노동시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위치와 노인 빈곤
 - 4) 청소원들의 복지와 건강
2. 서울시 청소노동자 구인광고를 통해 본 청소원 일자리의 변화
 - 1) 청소원 신규 일자리의 일반적 특성
 - 2)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고
 - 3) 보조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청소원 신규 일자리
 - 4) 서울시 구인공고에 나타난 문제점

4장. 그들은 왜 새벽, 강남으로 가나

1. 새벽노동을 하는 장년 여성의 시간
2. 장년 여성의 거주지
3. 같은 또래의 남성과 비교하기
4. 왜 늙어서도 새벽노동을 해야 하나

5장. 연구를 마무리하며

1장. 6411 새벽버스 연구를 시작하며

2020년 10월 25일 저녁, 노회찬 전 의원의 어머니 원태순 여사가 별세하셨다.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노회찬을 잃은 우리의 슬픔이, 차마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슬픔에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숙연해졌다. 생전에 어머니는 노회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만이가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노동운동 하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아야 한다”며 노동계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차마 자식의 험한 인생길이 염려됐는지 그 스크랩 표지에 “왜 이 길이나, 왜 하필 이 길이나”라고 적었다고 한다 (조현연, ‘노회찬과 노회찬의 어머니 원태순’, 《프레시안》, 2020. 10. 26.).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을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에 이르는 진보정치의 길은, 당사자와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모를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찬을 것이다.

최근 또 한 명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역시 노회찬과 얽혀있다. 노회찬에 대한 기억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젊은 세대가 ‘6411버스 연설’로 그를 떠올리는데 비해, 조금 윗세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한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사건으로 그를 기억한다고 한다. 이건희 사후, 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종의 사회적 기억투쟁이 벌어졌는데, 정기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검사들을 길들였던 그의 추악한 일면을 만천하에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었다. 그 일로 노회찬은 의원직을 잃었지만, 그의 진보가 ‘강자에겐 두려움 없이 강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부드러운’ 것임을 각인시키는 계기였다.

사회적 약자에게 연민과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그의 진보 정신은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에 녹아 있다. 연설의 말미에서 노회찬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6411번 새벽 첫차를 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잊혀진 ‘투명인간’이듯, 진보정당도 그들에게 ‘투명정당’이었다는 일같은, 진보정당의 존재 의의가 ‘투명인간’들의 정치적 가시화(可視化)에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6411버스’는 노회찬의 진보정신과 그가 구상한

진보정당의 비전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회찬의 진보정신을 ‘6411정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리라. 2019년 1월 공식 출범한 노회찬재단(정식 명칭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 노회찬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6411버스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6411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 즉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봉제노동자, 핵발전소 하청노동자 등 4개 직종 노동자들을 가시화하는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이번 연구는 청소노동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2장에서는 6411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가시화하려고 했다. 연구진들은 6411번 새벽 첫차에 직접 올라타서 설문지를 돌리고, 이를 분석해 그들의 하루 일과를 오롯이 재구성했다. 또 서울버스 교통카드에 쌓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지 추적했다. 이를 통해 6411 새벽 첫차를 타는 사람들의 일상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6411번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지역의 일터로 가는 사람들은 대개 고층빌딩에서 경비나 청소 등의 일을 한다. 특히 청소노동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웬만해선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현황, 인적 구성, 근로조건 등을 다양한 자료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 등록된 수 십 만 건의 구인 광고들을 분석해 구인 광고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서울시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벽시간대에 서울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고령인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이 늙어서도 새벽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7월 비극이 있던 날, 노회찬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했고, 지금은 정의당 대표인 김종철은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라고 그를 기억했다. 자신의 작은 결점이 대들보처럼 보여 괴로워 했던 사람이 노회찬이다. 또 많은 지인들, 그리고 더 많은 일반인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노회찬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많은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추모와 다짐을 ‘6411버스’로 모은 것이 이번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노회찬의 6411버스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실현할 것인지가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2장. 6411번 첫차를 타는 사람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1.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 창당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 노회찬은 그들을 호명(呼名)했다.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은 새벽 3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4시 6411번 첫차를 타고, 새벽 5시 반이면 강남의 어느 빌딩으로 출근했다.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었다.

#2.

2018년 7월 23일.

노회찬은 스스로 목숨을 거둬들였다. 자신은 여기서 멈추지만, 다른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3.

2020년 3월 새벽.

초봄인데도 새벽 한기가 매서웠다. 서울 구로동 거리공원에 위치한 6411버스 차고지에서 첫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노회찬에 의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몰랐다. 어디에 살고, 어디로 가며,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휴식을 취하는지 전혀 몰랐다. 6411버스는 우리 시대 ‘소외된 노동’의 상징이다.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노회찬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더 전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2020년 3월 어느날 새벽, 6411버스 첫차에 올라탄 이유였다.

우리 연구진들은 2020년 3월 16~18일까지 3일 연속 새벽 첫차를 탔다. 첫날, 설문지를 돌렸다. 다음날 설문지를 돌려주면 간단한 사례를 준다고 했다. 몇 차례, 기자들이 찾아오고, 간간히 신문기사가 나오고 방송을 탄 탓인지 그러려니 하는 표정이었다. 2012년 연설에서 노회찬은 이렇게 말했다. “한 분이 어찌다가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다. 모두가 모두를 알았다. 버스 안에서 우리 연구진만

낮선 이방인이었다.

둘째날, 몇 분이 설문지를 돌려줬다. 1만원 짜리 상품권을 받고는 서둘러 빈자리를 찾아갔다. 둘째날에도 같은 요구를 했다. “설문지를 작성해 내일 갖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7명의 설문지를 얻을 수 있었다.



6411버스는 새벽 4시, 구로동 거리공원 차고지를 출발한다. 5분 뒤에 또 다른 차가 출발한다. 워낙 승객이 많아 두 대의 차가 달리는 것이다. 이 버스의 최종 기착지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학교 앞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새벽 5시 반쯤 된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달린다.

우리 연구진은 6411번 새벽 첫차에서 3일 동안 수거한 47명의 설문지를 분석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서 버스를 타고, 또 어디에 내려서 어느 직장으로 향하는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들의 하루 일과를 재구성했다. 또 서울버스 교통카드가 축적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해 디테일한 부분을 채웠다.

1.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가

새벽 첫차를 꼭 채우면 대략 60명쯤 된다. 타고 내리는 사람까지 따지면 100명쯤 될 것이다. 47명의 설문응답자로 이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노회찬은 2012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관찰이었지만, 정말 그랬다. 새벽버스를 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47명의 설문응답자만으로도 ‘그들’을 묘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1>과 같았다. 여성이 전체의 78.7%였고, 50대 이상이 거의 전부였다. 60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38.3%, 50대 14.9%였다. 노회찬의 말대로, ‘5·60대 아주머니’들이었다.

<표2-1>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N
성별	남성	8 (17)	주당 출근일	3일	2 (4.3)
	여성	37 (78.7)		3.5일	1 (2.1)
나이	20대	1 (2.1)		5일	34 (72.3)
	50대	7 (14.9)		6일	9 (19.1)
	60대	21 (44.7)	하루 평균 노동시간	4시간 미만	3 (6.7)
	70대	18 (38.3)		4~8시간 미만	29 (64.6)
업무	청소업무	40 (85.1)		8~10시간 미만	7 (15.6)
	청소업무 관리	2 (4.3)	월급	10시간 이상	6 (13.3)
	식당조리	1 (2.1)		100만원 미만	3 (6.7)
	경비	2 (4.3)		100만~120만 미만	5 (11.1)
	기타	2 (4.3)		120만~150만 미만	6 (13.3)
근속기간	1년 미만	6 (12.8)		150만~170만 미만	9 (20.0)
	1~2년 이하	8 (17.0)		170만~200만 미만	18 (40.0)
	2~5년 이하	11 (23.4)		200만 이상	4 (8.9)
	5~10년 이하	10 (21.3)			
	10~15년 이하	8 (17.0)			

	15년 초과	4 (8.5)	
--	--------	---------	--

※ ()는 %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청소업무가 8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업무 관리 4.3%, 경비 4.3%, 기타 4.3% 등이었다. 이들의 직장이 서울 강남의 빌딩이라고 했던 노회찬은 이렇게 말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속기간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5년 이하가 53.2%로 절반 이상이였다. 5~10년 이하는 21.3%, 10년 이상은 25.5%였다. 노동시간은 어떨까. 주 5일 근무가 72.3%로 대부분이였다.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도 19.1%였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 미만이 71.3%였지만, 이 가운데는 하루 4시간 미만의 단기근무도 6.7%나 됐다. 반대로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13.3%였다.

이렇게 일하고 얼마나 별까. 노동시간과 업무 특성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6411버스 첫차의 출발지는 구로동 가로공원이다.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를 거쳐 강남구에 도착한다. 새벽 4시 첫차를 타려면 최소한 1시간 전쯤부터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야 한다. 이들이 사는 곳은 <표 2-2>와 같았다.

<표2-2>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거주지

집 위치		N	직장위치
구로구 (25명)	공원로	1	서초동
	구로2동	3	삼성동, 구로6동, 시흥동
	구로3동	3	역삼동, 삼성동
	구로4동	4	신사동, 반포동, 삼성동, 역삼동
	구로동	11	청담동, 역삼동, 쌍림동, 삼성2동 잠원동, 대치4동, 서초2동, 논현동 한강로동
	대림동	1	-
	도림동	2	서초동
영등포구 (18명)	당산동	1	수서동
	대림3동	1	논현동
	대림동	6	상도동, 회현동, 삼성동, 도곡1동 서초2동, 역삼동
	도림로	1	역삼동
	신길4동	1	논현2동

	신길5동	1	삼성동
	신길동	5	정동, 논현동, 삼성동, 압구정동
	신길로	1	반포동
	영등포동	1	역삼동
동작구 (3명)	대방동	1	역삼동
	노량진동	1	반포동
	흑석동	1	반포동
송파구 (1명)	풍납동	1	-

<그림2-1>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거주지



서울 구로구 거주자가 5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38.3%, 동작구 6.4%였다. 승객들의 거주지가 버스 이동경로를 따라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송파구 거주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야간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였다.

<표3> 6411버스 첫차 승객의 직장 위치

	직장 위치				합계
	강남구	서초구	도심	인근	

				(중구, 용산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집 위치	구로구	16	3	2	2	23
	영등포구	12	3	2	1	18
	동작구	2	1	0	0	3
	합계	30	7	4	3	44

6411버스 첫차는 강남을 향해 달린다. 그래서 첫차 승객들의 직장은 대부분 강남구(전체의 63.8%)와 서초구(14.9%)에 위치해 있다. 직장이 중구, 용산구 등 도심(8.5%)이거나,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인근인 경우(6.4%)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내려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할 것이다.

<그림2-2>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직장 위치



2. 그들은 어디서 타고, 어디로 내리나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버스는 출발한 지 15분만에 신도림과 구로 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2012년 연설에서 노회찬은 6411버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모두 잠든 시간, 이 버스는 구로구의 가난한 사람을 싣고, 강남구의 빌딩 앞에서 이들을 내려준다. 서울의 구로구와 강남구 사이의 지역적 격차는 크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격차이고, 정치적 참여와 대표의 격차이기도 하다. 구로구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새벽 강남구를 오가지만, 계급의 재생산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6411버스를 어떤 ‘메타포’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새벽 노동의 메타포이고, 정치적 소외의 메타포이며, 지역적 격차의 메타포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메타포 속에서 구체적 사람의 모습은 사라진다. 노회찬은 이렇게 말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이들의 새벽 동선을 좀 더 생생하게 복원하고자 했다. 이들이 어디서 새벽 첫차를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세세히 따져봤다. 이를 위해 서울버스 교통카드의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댈 때마다 “뽐”소리가 나는데, 이때 쌓이는 정보를 분석해 새벽 승객들의 승차 위치와 하차 위치를 살펴봤다.

먼저 서울버스 교통카드 정보에 쌓인 새벽 승객의 승차 위치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새벽 첫차에 총 149명이 승차했는데, 이 가운데 106명은 6411버스에 바로 승차한 경우이다. 나머지 43명은 먼저 다른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6411버스로 갈아탄 경우이다.

<표2-4>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승차 위치

	6411버스 노선	N	다른 버스를 타고 와서 6411버스로 환승		N
			광명시	광명시청	1
			강서구	송정역	1
			관악구	우림시장, 난곡보건분소	4
				봉원중학교	1
				봉일시장	1
				중앙동성당앞	2
			강북구	미아리고개	1
			성북구	정릉길음시장	1
				산장아파트	1
				의릉입구	1

			금천구	은행나무입구사거리	2
			은평구	녹번역	1
			광진구	어린이대공원후문아차산역	1
구로구	거리공원	6	구로초등학교		1
	한국SGI	1			
	서울미래초등학교	2			
	신도림역	1			
	서울미래초등학교	2			
	거리공원구로신협본점앞				
	구로도서관,대성스카이렉스				
	영림중학교	4			
	구로구청	5			
	구로4동우체국.고대구로병원	7			
	구로시장	1			
	남구로역	2			
	구로종합사회복지관	1			
	영서중학교	2			
	대림역	2			
영등포구	대림역12번	3			
	대동초등학교	2	신도림역		1
	대림동우성아파트	6	문래동시점		4
	신길5동새마을금고우리시장	6	김안과병원		1
	신풍역	1			
	신풍역.백악관웨딩문화원앞	6			
	사려가쇼핑센타	6			
	우신초등학교	4			
	영등포농협	3			
	대신시장	3			
	신길새마을금고	2			
	대방역	1			
동작구	현대아파트	3			
	노량진수산시장.CTS기독교TV	6	총신대입구역, 남성시장입구		1
	노량진역	10	패션문화의거리입구		1
	노들역		사당역		3
	노들역4번출구앞	2	이수역		2
	흑석동효사정앞	1	예술인마을, 사당초		1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4	성대시장		2
	비계		청화병원		1
	흑석동한강현대아파트		상도초입구		2
서초구	동작역.국립현충원		경문고등학교		2
	구반포역,세화고		종로교회		2
	신반포역	1			
	고속터미널				
강남구	반포역				
	논현동사거리		역삼역GS타워		1
	영동시장				
	논현동사거리.학동역				
	임피리얼팰리스호텔워터게이트				
강남YMCA앞					

아크로힐스논현			
선릉역,무형문좌재전수회관			
선릉역			
진선여고앞			
역삼e편한세상			
한티역			
도곡렉슬아파트정문			
중대부고앞			
그랑프리백화점			
구룡중학교앞			
개포고등학교앞			
개포1단지			
개포중학교			

위의 <표4>의 왼편은 6411버스의 정류장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정류장별 승차 인원을 보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대부분이 승차한다. 그리고 동작구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정류장을 지나면 더 이상 6411버스로 바로 승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4>의 오른편은 6411버스로 갈아타기 전에 먼저 탔던 버스의 승차위치이다. 멀게는 광명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강서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금천구, 은평구, 광진구 등에서 첫차를 탄 뒤 어느 정류장에서 6411버스로 환승한다.

<그림2-3>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승차 위치



3. 언제 가장 붐비고 어디서 내리나

이렇게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면 버스는 금새 만원버스가 된다. 노회찬은 만원버스가 되는 시점을 ‘출발 15분 만’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노회찬의 눈썰미가 정확했을까. 그의 직관을 데이터로 확인해봤다.

단말기에 “빡”소리가 날 때마다 서울버스 교통카드에 쌓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6411번 새벽 첫차의 시간대별 혼잡도를 분석했다. 분석날짜는 2018년 5월 10일, 5월 한달의 평균에 가장 수렴하는 날을 선정하였다.

<표 2-5> 6411버스 첫차의 시간대별 혼잡도

정류장명	시간	승객수	혼잡도
거리공원	04:00	3	여유
한국SGI	04:01	5	여유
서울미래초등학교	04:03	7	여유
신도림역	04:05	10	여유
거리공원.KEB하나은행구로공원지점	04:07	10	여유
구로도서관.대성스카이렉스	04:09	11	여유
영림중학교	04:10	14	여유
구로구청	04:11	22	여유
구로4동우체국.고대구로병원정문	04:15	26	보통
구로시장	04:16	23	보통
남구로역	04:17	22	보통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4:19	22	보통
대림역	04:21	23	보통
대림역12번출구	04:23	21	보통
대동초등학교	04:25	18	보통
대림동우성아파트	04:26	19	보통
신길5동새마을금고우리시장	04:27	19	보통
신풍역	04:28	19	보통
신풍역.백악관웨딩문화원앞	04:30	22	보통
사리가쇼펍센터	04:31	26	보통
우신초등학교	04:32	32	보통
영등포농협.신길2동새마을금고	04:33	34	보통
대신시장	04:34	32	보통
신길새마을금고	04:36	40	혼잡
대방역	04:38	46	혼잡
현대아파트	04:41	43	혼잡
노량진수산시장.CTS기독교TV	04:41	46	혼잡
노량진역	04:43	50	혼잡
노들역	04:45	62	혼잡
노들역4번출구앞	04:47	62	혼잡
흑석동효사정앞	04:50	61	혼잡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04:51	57	혼잡
비계	04:53	56	혼잡
동작역.국립현충원	04:55	48	혼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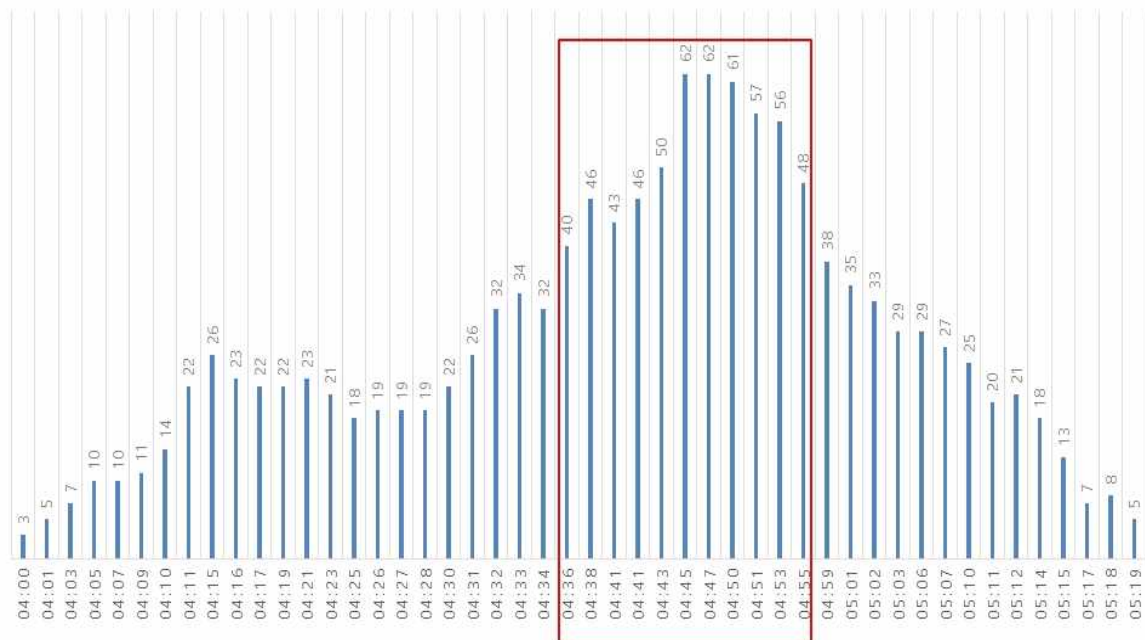
구반포역.심산문화센터	04:59	38	보통
신반포역	05:01	35	보통
고속터미널	05:02	33	보통
반포역	05:03	29	보통
논현사거리.논현역4번출구	05:06	29	보통
영동시장	05:07	27	보통
논현동사거리.학동역	05:10	25	보통
임피리얼팰리스호텔위터게이트	05:11	20	보통
강남YMCA앞	05:12	21	보통
아크로힐스논현	05:14	18	보통
선정릉역.무형문화재전수회관	05:15	13	여유
선릉역	05:17	7	여유
진선여고앞	05:18	8	여유
한티역	05:19	5	여유

※ 승객 =<15: 여유 (좌석에 앉아 갈 수 있음)

15<승객<40: 보통 (입석이지만 손잡이를 잡을 수 있음)

승객>=40: 혼잡 (움직이기 어렵고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승객이 발생)

시간대별 승객수



승객이 40명을 넘으면 움짱달짝하기 힘들다. 손잡이 잡기도 버거울 정도다. 이렇게 혼잡해지는 시점은 영등포구 신길새마을금고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쯤이다. 노회찬이 말한 때보다 20분쯤 뒤인 출발 36분 만이다. 이런 혼잡 상태는 20분 정도 지속된다. 그리고 서초구 반포역과 고속터미널 쯤 갔을 때, 겨우 숨통이 트인다. 이쯤 오면 다른 버스로 환승하거나, 인근 직장으로 가기 위해 대부분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6411번 첫차의 승객 분포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도가 출렁이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연구팀이 2020년 3월, 설문지 배포를 위해 첫차에 탔을 때가 그랬다. 처음 10분 가량은 일일이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하고,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출발 15분 쯤,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쯤을 지나면 승객은 이미 20명을 넘기 시작한다. 이후로도 승객은 꾸준히 불어난다. 빈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통로도 붐비기 시작하면 비좁은 곳에서 말을 붙이는 연구팀원들은 성가신 존재가 된다. 연구팀원의 말도 빨라진다. 그리고 출발 30분쯤이 지나면 이미 버스 안은 움푹달짝할 틈이 없다. 한껏 어깨를 포개고 덜컹거리는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출렁거린다. 설문조사는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가 된다. 새벽 5시쯤, 고속터미널을 통과하면 버스 안은 완연하게 한산해진다. 더 이상 설문을 부탁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버스는 기착지인 강남구 개포동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6411번 첫차 승객들이 어디서 내리는지 분석했다. 승차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버스 교통카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총 143명의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했는데, 이 가운데 96명은 6411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다. 이 분들은 직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한 번만 타는 경우이다. 나머지 47명은 다시 다른 버스로 환승한 경우이다.

<표 2-6>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하차 위치

	6411버스 노선	N	6411버스에서 다른버스로 환승		N
			성북구	국민은행장위1동지점	
구로구	거리공원		구로변전소, 구로초		1
	한국SGI		삼호아파트		1
	서울미래초등학교				
	신도림역				
	서울미래초등학교				
	거리공원구로신협본점앞				
	구로도서관,대성스카이렉스				
	영림중학교				
	구로구청				
	구로4동우체국,고대구로병원				
	구로시장	1			
	남구로역	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1			
	영서중학교				
	대림역				
	대림역12번	1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2	영등포로터리		1
	대림동우성아파트	2	영등포시장입구		1
	신길5동새마을금고우리시장				
	신풍역	2			
	신풍역,백악관웨딩문화원앞	1			
	사려가쇼핑센터				
	우신초등학교	3			

	영등포농협			
	대신시장			
	신길새마을금고	5		
	대방역	3		
	현대아파트	2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CTS기독교TV	2	동작구청, 노량진초 앞	4
	노량진역	2	동작문화복지센터	1
	노들역	2		
	노들역4번출구앞	1		
	흑석동효사정앞			
	흑석역.명수대현대아파트			
	비계			
	흑석동한강현대아파트			
	동작역.국립현충원	2		
서초구	구반포역.세화고	9	교육개발원입구	1
	신반포역	3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2
	고속터미널	15	방배동대우효령아파트 앞	1
	반포역	6	서초동무지개아파트	1
			신반포13차아파트	2
			신반포자이아파트	1
			잠원한신아파트	1
강남구	논현동사거리		광림교회, 현대고	1
	영동시장		논현역	4
	논현동사거리.학동역	6	무역센터	2
	임피리얼팰리스호텔위터게이트	4	삼성동서광아파트	1
	강남YMCA앞	4	신사역사거리	1
	아크로힐스논현	1	언주역2번, 차병원사거리	2
	선릉역.무형문좌재전수회관	9	영동대교북단	1
	선릉역	1	영동중앙교회	1
	진선여고앞	1	역삼역	1
	역삼e편한세상		휘문중고	1
	한티역		강남역	8
	도곡렉슬아파트정문		총지사	2
	중대부고앞	2	포스코사거리	2
	그랑프리백화점	1	하나로마트코트라	1
	구룡중학교앞			
	개포고등학교앞			
	개포1단지			
	개포중학교	1		

위의 <표2-6>을 보면, 왼쪽은 최종 하차지가 6411번 버스 정류장인 사람들이다. 오른쪽은 6411버스에서 내린 뒤 다른 버스로 갈아탄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최종 하차지의 서초구 아니면 강남구이다. 서초구 정류장에서 최종 하차한 경우가 42명(29.4%), 강남구에서 최종 하차한 경우가 57명(39.9%)로, 이 두 지역이 전체의 69.3%였다. 6411번 새벽 첫차 승객의 10명 중 7명이 서초구, 강남구에서 내리는 것이다. 노회찬의 말대로, 아마 서둘러 이들 지역 어딘가의 고층빌딩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림3> 하차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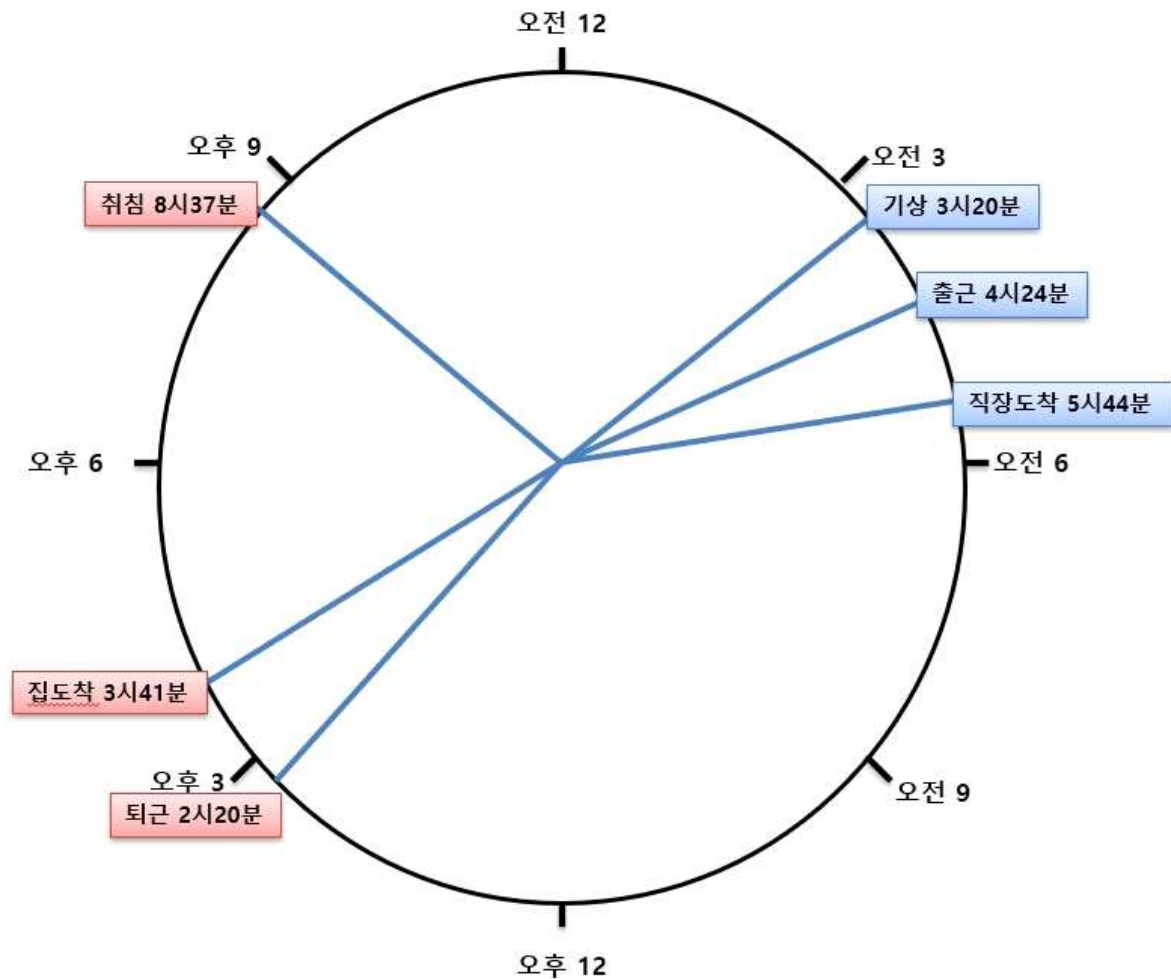


4. 그들의 하루

“이들은 아홉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2012년 노회찬의 연설을 찬찬히 듣다보면, 6411버스 첫차 승객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들(they)’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들(these people)’이 된다. 투명인간이었던 ‘아주머니’들이 실상 이름이 있고, 가족을 둔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연구팀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분들의 평균치 하루를 재구성해봤다.

<그림2-3> 6411버스 첫차 승객들의 하루



이들이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직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4시간이다. 평균치로 따졌을 때, 오전 4시24분에 집을 나서 오전 5시44분에 직장에 도착한다. 출근 소요시간은 당연히 강남에서 먼 곳일수록 길어진다. 동작구 거주자는 1.19시간, 영등포구 거주자는 1.28시간이다. 구로구에 산다면 평균 1.40시간이 걸린다. 2시간 넘게 걸리는 분들도 있다.

<표2-8> 첫차 승객들의 출근 소요시간

집 위치	N	평균 기상시간	평균 출근시간 (A)	평균 직장도착 시간 (B)	출근 소요시간 (B-A) (시간)		
					평균	최소	최대

구로구	24	오전 3시15분	오전 4시36분	오전 6시	1.40	0.33	2.17
영등포구	17	오전 3시23분	오전 4시8분	오전 5시25분	1.28	0.75	2.17
동작구	3	오전 3시43분	오전 4시28분	오전 5시40분	1.19	0.67	1.50
평 균	44	오전 3시20분	오전 4시24분	오전 5시44분	1.34	0.33	2.17

서울 강남의 직장에서는 평균 9.96시간을 머문다. 이 시간 속에는 실제 노동하는 시간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시간은 임금을 받지만, 준비시간은 임금이 없다. 부불(不拂) 노동시간인 셈이다. 임금을 받는 실제 노동시간이 평균 7.71시간이니까 부불노동시간은 평균 2.27시간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1.27시간에 대해서는 무급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 시간동안 이뤄지는 작업복 환복, 작업도구 정리 등의 작업은 노동이 아니라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실제 노동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다.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불노동시간이 최대 4.12시간인 경우도 있었다. 사람을 쓰면서 그들의 시간을 공짜로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9> 첫차 승객들의 평균 직장체류시간

직장 위치	N	직장체류시간 (시간)	부불노동시간 (시간)	실제 노동시간 (시간)
강남구	30	9.53	1.91	7.62
서초구	7	10.03	1.87	8.30
기타	7	11.74	4.12	7.61
평 균	44	9.96	2.27	7.71

평균치로 따졌을 때, 퇴근시간은 오후 2시20분이다. 다시 6411번 버스를 타고 새벽에 왔던 길을 거슬러 가야 한다. 집에 도착하면 오후 3시41분이다. 평균 1.11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집 도착시간이 가장 늦은 경우는 오후 4시38분이다.

<표2-10> 첫차 승객들의 평균 퇴근 소요시간

직장 위치	N	직장퇴근시간	집도착시간	퇴근소요시간 (시간)		
				평균	최소	최대
강남구	30	오후 2시12분	오후 3시21분	1.13	0.50	3.00

서초구	7	오후 3시25분	오후 4시38분	1.21	1.00	2.00
기타	7	오후 1시46분	오후 4시18분	0.88	0.50	1.00
평 균	44	오후 2시20분	오후 3시41분	1.11	0.50	3.00

평균치 사람의 하루는 생산과 재생산의 시간으로 나뉜다. 생산의 시간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시간이다. 재생산은 그 노동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다. 생산이 온전히 노동에 바쳐진다면, 재생산은 노동을 하는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 혹은 다음날 생산이 아니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6411번 첫차 승객들은 집에 와서도 일을 한다.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39시간이다. 여가 시간은 평균 2.07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집에 돌아와 평균 2시간 반쯤 집안 일을 하고, 2시간쯤 쉬었다가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에 눕는 평균치 시간은 오후 8시37분이다. 노회찬의 말대로, 9시 뉴스도 못보고 잠자리에 든다. 그래서 세상 일에 어둡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와 정책에 무관심하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다음 날 새벽 출근이 걱정이다. 자신의 몫을 나누는 세상 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된 세상은 더욱 불공평해지고, 삶은 더욱 가파르다.

<표2-11> 첫차 승객들의 귀가 후 시간 구성

직장 위치	N	집안일	여가	평균 취침시간
구로구	21	1.86	2.23	오후 8시47분
영등포구	16	2.94	1.93	오후 8시22분
동작구	3	3.50	1.66	오후 8시50분
평 균	40	2.39	2.07	오후 8시37분

날이 밝으면 다시 출근이다. 전날 9시 뉴스도 못 보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오전 3시20분에 깬다. 평균 수면시간은 5.81시간이다. 수면시간이 3시간도 못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주야 교대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둘러 채비를 마친 뒤 전날의 그곳에서 6411번 첫차를 기다린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 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표2-12> 첫차 승객들의 평균 수면시간

집 위치	N	평균 취침시간 (A)	평균 기상시간 (B)	평균 수면시간 (B-A)		
				평균	최소	최대
구로구	23	오후 8시47분	오전 3시15분	5.78	3.67	9.00
영등포구	18	오후 8시22분	오전 3시23분	5.67	2.50	8.50
동작구	3	오후 8시50분	오전 3시43분	6.89	6.67	7.00
평 균	44	오후 8시37분	오전 3시20분	5.81	2.60	9.00

5. 서울의 6411번 버스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6411번 새벽 버스는 서울의 구로동에서 강남을 향해 달린다. 서울에는 이런 새벽 버스들이 많다. 그만큼 새벽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서울버스 교통카드의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6411번 버스처럼 새벽 4~5 사이 하루 평균 승객이 100명 이상인 버스를 추려냈다.

서울시 버스노선 647개 가운데 새벽 승객이 100명 이상인 버스 노선은 총 116개, 전체의 17.9%이다. 서울 버스의 5대 중 1대꼴로 새벽마다 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버스마다 새벽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꽉 찬다는 뜻이다.

<표 2-13> 서울버스의 새벽시간 일평균 승객수

새벽시간(오전4~5시) 일평균 승객수	노선수(개)	비율(%)
100명 미만	531	82.1
100~200명	64	9.9
200~300명	37	5.7

300명 이상	15	2.3
---------	----	-----

새벽 승객이 100명 이상인 버스 가운데 다시 상위 10개 노선을 골라낸 것이 다음의 <표 14>이다. 서울 수유동과 안양시 석수동을 오가는 152번 버스는 새벽시간 일평균 승객수가 438명으로, 6411번 버스보다 1.10배 많다. 서울 상계동과 역삼동을 오가는 146번 버스는 1.07배가 많고, 서울 번동과 방배동을 오가는 148번 버스는 1.03배가 많다. 노회찬이 말했던 6411번 버스의 새벽 승객수는 평균 398.5명으로, 4번째였다.

<표2-14> 새벽승객 과다 상위 10개 노선

노선명 (그룹)	새벽 1시간(4~5시) 일평균 승객수	기점	회차
152번	438.6	강북구 수유동	안양시 석수동
146번	429.9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역삼동(강남역)
148번	410.7	강북구 번동	서초구 방배동
6411번	398.5	구로구 구로동	개포동
504번	392.8	광명시 하안동	중구 회현동
260번	363.6	중랑구 신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104번	356.2	강북구 수유동	중구 봉래동(서울역)
5618번	350.9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741번	348.6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세곡동
5413번	346.4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반포동

3장. 6411 첫차 승객들의 노동

앞장에서 우리는 6411 새벽 첫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교통카드를 분석하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해 봄으로써 노회찬의 말대로 이들이 대부분 구로에서 출발하여 강남 일대로 일을 하러 가는 청소원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그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6411탑승객인 청소원들의 전반적인 특성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에는 수많은 6411 버스와 새벽버스 탑승객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하루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되며, 그들의 노동으로 도시가 깨어나 움직인다. 도시의 하루를 열고 또 다른 이들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원들의 노동 현실은 어떠할까? 노회찬이 우리에게 청소노동자들의 존재를 일깨웠던 2012년 이전과 2020년 현재, 변한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청소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3-1>은 한국의 표준고용분류에서 우리 연구의 대상인 “청소원”(빛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중분류 항목의 직업들을 추출한 것이다.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은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과 “건물관리인 및 검표원으로 나누어 지며”, 우리의 연구 대상인 “청소원”은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과 함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된다. “청소원”은 건물, 운송장비를 포함한 청소원을 지칭하며,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쓰레기 수거원, 거리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직업 의 성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간 청소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인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분류인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만 집계하고 있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원 집단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원이 속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통해 청소원의 숫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비율은 2.2:1 가량이다)

<표 3-1> 한국 표준고용분류 항목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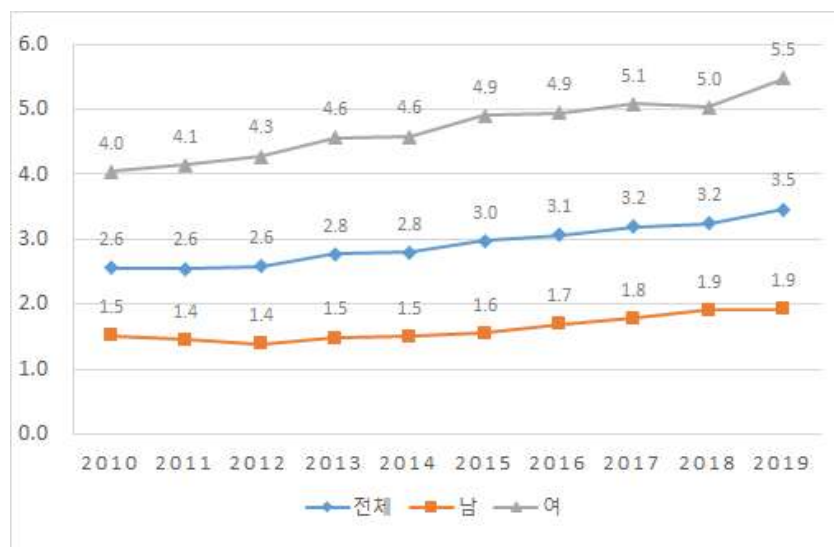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원	건물청소원, 운송장비 청소원, 그 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관리인 및 검표원	건물관리인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 관리인
		검표원	

<표 3-2>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근 9년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보여준다. 2010년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61만 가량이었으나 이 기간 동안 이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5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2010년의 규모의 1.6배 가량이다.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증가, 그리고 산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 수의 증가 등에 의한 청소수요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3-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규모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취업자수	23,931	24,421	24,637	25,798	26,247	26,519	26,746	27,026	27,090	27,509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11	623	636	716	734	789	821	862	880	953

<그림 3-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비율의 변화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자료를 재구성함

비율로 보면 (그림 3-1) 전체 취업자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비율은 2010년 4.0% 가량이었으나 2019년에는 5.5%로 증가 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이승윤 등의 연구 (2018)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취업자수는 “경영관련 사무원”, “매장 판매 종사자”, “작물재배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주방장 및 조리사”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150여개의 직업집단 중 6번째로 큰 규모이다.

1.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2010년 이후의 청소노동자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전체 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청소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을까.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장점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직업 분류 내에서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하는 청소노동자들인 “청소원”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원들의 노동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노회찬이 그들에게 주목했던 2012년 이전의 자료인 2011 근로환경조사와 비교하여, 약 6년간의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2017년 근로환경조사에서 청소원으로 분류된 1,063명을 분석하였으며, 2011년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2017년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활용하였다.

1) 높은 비정규직 비율

청소원들의 노동조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전체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종사상의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매일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임금이나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구분한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부터 1년 미만의 경우 임시직,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표 3-3> 청소원들의 직장 특성 (2017년)

	구분	%
전일제/시간제	전일제	71.8
	시간제	28.3
상용/계약직	상용	48.7
	일용/임시 (계약)	51.3
직접고용/간접고용	직장(지난주 일한 곳)	64.8
	용역/파견업체	35.2
직장 성격	민간부문	81.8
	공공부문	14.9
	기타	3.3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26.2
	비정규직	73.8

<표3-3>에서 보면, 전일제/시간제로 구분했을 때 전일제 고용은 71.8%, 시간제 고용은 28.3%이고, 상용/계약직으로 구분했을 때 상용직은 48.7%, 계약직은 51.3% 이며, 직/간접 고용으로 구분했을 경우 직접고용은 64.8%, 간접고용은 35.2%였다. 전체 청소노동자들 중 전일제, 상용직, 직접고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용 형태만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였을 때 정규직 비율은 26.2%였으며 비정규직은 73.8%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30.8% 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표 3-4> 청소원들의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시간 (2011년)

종사상지위		월평균 수입	시간당임금	주당 근로시간
정규직	197명(27.7%)	116만원	6,207원	45.7
비정규직	507명(73.8%)	86만원	5,121원	39.8
전체	701(100%)	100만원	5,558원	42.2

<표 3-5> 청소원들의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시간 (2017년)¹⁾

종사상지위		월평균 수입	시간당임금	주당 근로시간
정규직	261명(26.2%)	143만원	8,372원	39.4
비정규직	734명(73.8%)	110만원	8,054원	33.3
전체	995명(100%)	119만원	8,137원	35.1

<표 3-4> 와 <표 3-5> 는 2011년과 2017의 청소원들의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시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우선, 2017년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청소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정규직의 경우 143만원, 비정규직은 110만원이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8,372원과 8,054원으로 월 평균 수입의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는데 정규직 청소원들의 주 근로시간은 39.4시간, 비정규직의 경우 33.3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의 차이는 주로 근로시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원들의 노동시간을 2011년과 비교해보자. 2011년의 경우(<표 3-4>)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평균 45.7시간, 비정규직의 경우 39.8시간이다. 2011년에 비해 2017년의 청소원들의 노동시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 그

1) 본 장에서 시간당 임금이 5만원 이상인 청소원들의 경우는 월 평균 수입과 시간당 월급을 계산할 때 제외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월 평균 수입을 보고할 때 청소원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이외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체로 봤을 때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시간을 잘게 쪼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가 증가한다는 데서 오는 효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상용직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4.7시간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8시간가량 감소하여 노동시간의 감소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그림 3-2>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11년에 전체 청소원들의 전일제 일자리의 비율은 81%였지만, 2017년에는 72%까지 감소하여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 2011년 31.3%였던 시간제 일자리가 2017년에는 44.2%의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시간제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8%→14%), 청소원이 포함된 단순노무 분야의 증가(22%→33%)가 두드러진다(본 연구보고서에 나타내지는 않았음).

<그림 3-2> 청소원의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변화 (2011, 2017년)



시간제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일-가정 양립, 자기 개발, 시민으로서의 사회활동 등을 위한 대안적 노동의 형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1980년 말부터 진행된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과 단순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부정책의 결과 (신경아, 2013:86)”로 나타나 199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확산 속에서 인력 감축을 막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제 고용이 정부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신경아, 2013).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저숙련 저임금 노동으로 특징되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주로 고령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승진 가능성이 낮으며,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의 경우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주희, 2011).

2)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청소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청소노동은 우리 사회에 고령자가 집중되는 노동이면서 동시에 성 편중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직업이다(권혜자, 2014).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원들의 평균 연령은 61.1세로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인 45세를 크게 상회하며, 여성이 전체 청소원의 84%로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우선 <표3-6>에 나타난 2017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청소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35.5시간으로 임금노동자들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인 42.4 시간보다 7시간가량 짧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대로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임시 혹은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높아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8,307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14,206원의 58%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금노동자들 전체의 월 수입의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는 높지만 우리의 분석에서 계산된 시간당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평균 노동시간으로 나눈 수치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수당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청소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여기에 나타난 자료보다 더 낮게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표 3-6> 청소노동자들의 연령별 성별 노동조건 (2011년과 2017년)

	2011 (726명)			2017 (1,031명)		
	주당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원)	월수입(원)	주당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원)	월수입(원)
임금노동자 전체	47.3	10,394	2,043,365	42.4	14,206	2,476,727
청소노동자	42.2	5,558	996,039	35.4	8,307	1,228,098
50세 미만	46.5	6,926	1,392,230	39.3	9,561	1,605,833
50-65세 미만	42.7	5,431	961,082	38.2	8,556	1,353,670
65세 이상	36.9	4,596	711,753	30.7	7,651	959,615
남	46.9	6,665	1,367,354	38.8	9,725	1,631,488
여	40.6	5,170	865,600	34.9	8,031	1,149,560

2) 2019년에 개정·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성 임금 등은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본 연구가 이용한 자료는 2017년 자료로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의 내용, 즉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2018년까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의 상황을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청소노동자들 내부의 연령별, 성별 노동조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II 장에서 6411 첫 버스에 승차하는 탑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승객들 중 50대 이하의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았고, 80% 이상의 탑승객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2017년 전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 중 50세 이하의 연령층은 약 9%, 50-65세의 연령층이 53% 가량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3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 집단들 간에는 주당 근로시간 월수입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50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65세 이상의 노동자들보다 주당 근로시간은 9시간 더 길며, 월 수입은 65만원 더 받고 있다. 시간당 임금 역시 50세 미만의 노동자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보다 1,910 원 가량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젊은 연령의 사람들일수록 신체적으로 더 힘들고 위험하여 단가가 높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특징 지워지는 비정규 고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3>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청소원들 중 임시·일용직, 시간제 계약, 용역·파견 등의 비정규 고용이 61.5%로 높은 수준이지만,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져 65세 이상의 청소원들은 81%가량이 비정규 노동자이다. 따라서 연령별로 나타나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데서 오는 효과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3> 연령별, 성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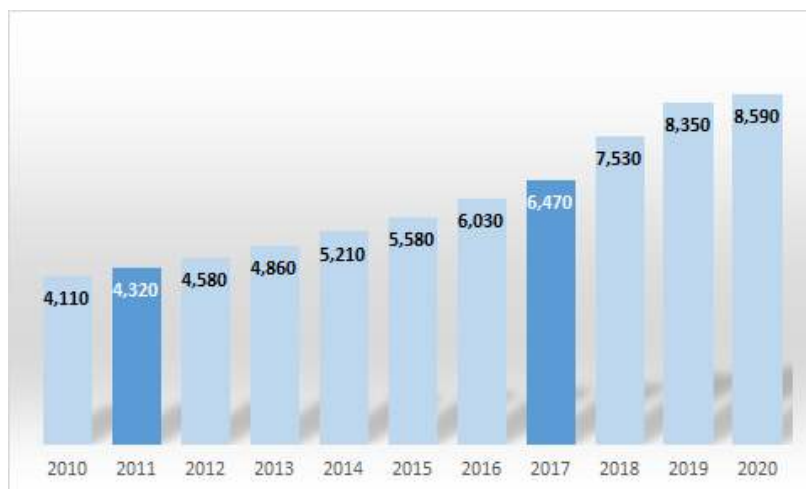


연령집단 간에 나타나는 시간당 임금, 노동시간, 월수입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 간에도 나타나는데, 동일한 청소원 업무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보다 시간당 임금을 1,7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다. 성별 간 임금 차이 역시 연령별 임금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권혜원 등 (2016)은 이를 “비정규직의 여성

화”로 표현한다. 이는 남녀 간 사회적 성별 불평등의 형태가 같은 직업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저임금 청소업 내에서도 세부 직종 간 성별분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화된 일자리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업에서는 남성들이 주로 건물 주변이나 외부, 장비 등의 청소를, 여성들은 건물 내부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업무에 적은 임금을 배치하는 것이다.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고령 여성노동자들의 시간제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재민, 2014)

그러면, 이러한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며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2011년과 2017년의 임금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노동자들과 같이 저임금 직종의 임금 수준은 다른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처럼 경력이나 학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최저시급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권혜자, 2014; 강승복, 2011; 권혜원 외, 2016)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그들의 임금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3-4> 최저시급 변화 (2010-2020, 단위:원)



우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그림 3-4>), 2011년의 최저임금은 4,320원,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청소원들의 시간당 임금은, 2011년과 2017년에 똑같이 1.3배 가량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수준은 6년동안 개선이 되어 왔으나 청소원들의 시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집단 간의 임금 차이는 2011년 1.5배에서 2017년 1.2배로 그 격차가 감소했으며, 임금노동자들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할 때에도 그 격차는 유의미하게 좁혀졌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는 2011년 1.3배에서 2017년 1.2배로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연령, 고용구조, 사업체 특성, 학력 등 집단 간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을 가진 노동력들 사이에 성별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재민, 2012; 김수현, 2015).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를 구성하는 연령, 성별, 기업 조직의 특성 등에 의한 임금 불평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유독 성별에 의한 임금불평등은 특정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서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령별, 성별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부분적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등 고용의 성격의 효과가 연령과 성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의 여성 청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 자체의 불리함과 여성으로서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3) 노동시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위치와 노인 빈곤

청소원들의 이러한 근로 조건은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을까? 아래 그림(<그림 3-5>)은 2017년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10개 직업집단별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것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을 포함한 관리자가 4만2천원 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청소원이 속한 단순노무종사자들은 관리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9,800원 가량을 받고 있다.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속한 단순노무종사자 내의 직업들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그림 3-6>)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이 1만4천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직종에서는 판매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제조관련, 순인데,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은 단순노무 종사자 내에서도 가장 적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

단순노무종사자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을 계산해보면 (<그림3-6>), 월 평균 노동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은 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은 127만원에 그쳐 6개의 단순노무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수입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단순노무 종사자들 중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을 다시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그리고 건물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월 평균 수입을 살펴보았다 (그림으로 나타내진 않았음). 남성노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관련 노무직의 월평균 수입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주당 노동시간도 59시간으로 가장 길었는데, 이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청소원의 월 수입은 130만원으로 경비관련 노무직의 74% 가량이다.

<그림 3-5> 직업별 시간당 임금 (2017, 전체 직종)



<그림 3-6> 직업별 시간당 임금 (2017, 단순노무 종사자 내)



<그림 3-7> 월평균 수입 (단순노무 종사자 내)



이렇게 전체 직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원들의 상황은 그들이 속한 가구의 빈곤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소원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고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가구의 빈곤 문제는 바로 노인 빈곤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근로환경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소원들 전체의 평균 가구원수는 2.1명이며 자신이 가구의 주 수입원이라 대답한 청소원들은 73.2%에 이른다 (<표 3-7> 참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는 1.8명, 자신이 주 수입원이라 대답한 경우는 84%를 넘는데, 이들 고령의 청소원들 중 43%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 거주하는 이들의 평균 임금은 107만원에 그치고 있다. 즉, 가구의 주 수입원이자 유인한 수입원인 그들은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워킹 푸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평균 가구원수는 2명, 자신이 주 수입원이라 대답한 경우는 82%,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32%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 노동자들의 가구는 점점 더 많은 가구가 저임금의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인 빈곤 가구의 증가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표3-7> 청소노동자들의 주 수입자 여부와 독거가구 비율

	전체			65세 이상		
	가구원수	주 수입자	독거가구	가구원수	주 수입자	독거가구
2011년	2.4	66.4	22.8	2.0	82.5	31.8
2017년	2.1	73.2	31.0	1.8	84.4	43.2

2017년 1인 가구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6만원을 상회하긴 하지만, 각종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들이 일주일 평균 3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으로 인해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이 대다수인 직업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언제라도 더 심한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원들의 복지와 건강

청소원들의 급여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래 <표 3-8>에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91%가량의 청소원들은 고정된 기본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9% 가량은 고정적인 기본급의 형태로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 업무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신체 활동이나 화학약품 등의 사용을 하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한 청소원들은 8.4%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청소원들의 급여에는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초과·연장근무 수당 역시 92.5%의 노동자들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청소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만 고려하여 살펴보면 80%에 가까운 청소원들이 그들의 급여에 초과·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3-8> 청소노동자들의 급여 및 수당

	고정 기본급여		위험수당		초과·연장근무 수당		휴일수당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포함됨	936	90.6	87	8.4	157	7.5	149	14.4
포함 안됨	97	9.4	944	91.6	874	92.5	883	85.6
Total	1,033		1,031		1,031		1,032	

청소원들 중 휴일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14% 가량이었고 나머지 85.6%의 청소원들은 휴일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혹은 이들 모두 근무를 한다고 대답한 344명의 청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84.3%의 청소노동자들이 휴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노동자들 이외의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노동 (휴일 근무, 초과·연장근무 여부)의 경우 휴일 수당은 28%, 초과·연장수당은 37% 가량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3-9> 휴일, 초과/연장 근무자들의 수당

	휴일수당		초과/연장 수당	
포함됨	54	15.7	43	16.29
포함 안됨	290	84.3	221	83.71
합계	344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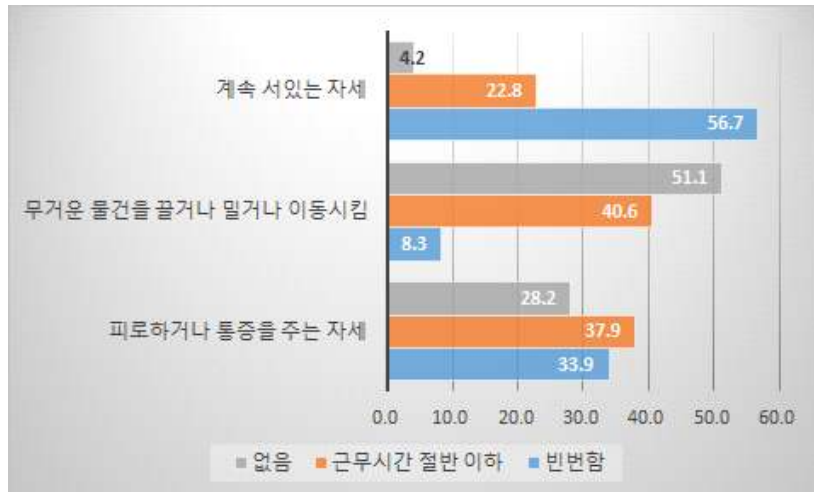
청소노동자들은 질환에도 노출 정도가 높았는데, 요통은 25.7%, 상지근육통은 44.1%, 하지근육통은 35%, 전신피로는 33.1%의 청소원들이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빈도로 이 질환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요통의 경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74%, 상지근육통은 83%, 하지근육통은 74%, 전신피로는 82%가 현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10> 청소노동자들의 질환과 업무관련성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피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질환 있음	273	25.7	468	44.1	372	35	351	33.1

업무관련 유	202	74	388	82.9	276	74.2	286	81.5
업무관련 무	71	26	80	17.1	96	25.8	64	18.5
질환 없다	789	74.3	594	55.9	690	65	710	66.9
전체	1,062	100	1,062	100	1,062	100	1,061	100

<그림 3-8> 현재나 미래의 질병과 관련된 특정 자세의 경험 빈도



청소노동자들은 현재의 질환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다. 계속 서 있는 자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근무시간 절반 이상)가 57%였으며,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키는 자세도 8.3%가 근무시간 절반 이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41%는 근무시간 절반 이하로 종종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34%의 청소원들이 근무시간 절반 이상 경험한다고 대답하였고, 38%는 종종 그러한 자세로 작업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신체 질환을 갖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38%가 별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청소원들이 일과 관련한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1> 청소원들의 프리젠티즘 경험

	빈도	%
있다	209	19.66
없다	753	70.84
아프지 않았다	162	9.5
전체	1,063	100

이렇게 청소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에 지속적으로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다. 청소원들은 프리젠티즘 (몸이 아픈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했던 경험)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20%가량이 프리젠티즘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지난 12개월간 평균 5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들 중 16% 가량이 프리젠티즘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원들의 프리젠티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은 프리젠티즘이 대체적으로 직업에 대해 노동자들 자신이 갖는 통제력이 약하거나, 직업 불안정성이 크거나, 보상체계나 수당 등의 복지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희주, 2018; Kim et al. 2016).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근로 여건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가 등을 쓰기보다 질병을 갖고 출근을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프리젠티즘의 비율보다 청소원들의 프리젠티즘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다른 직업들에 비해 고용 형태나 노동 조건 등이 열악한 청소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청소원 일자리의 변화

앞서 분석했듯이 청소원들의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가 어떤 성격의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다. 증가한 청소원 일자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일자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에 의해 대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 일자리 포털(job.seoul.go.kr)에 등록된 구인광고 정보를 분석하여 청소원들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와 조건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특히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등록된 구인광고 정보는 사용자들에 의해 제시된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고용 요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앞장에서 분석한 청소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보는 전국단위의 조사자료이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자료는 서울 지역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두 자료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청소원 일자리의 추세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전국 규모의 서베이인 『지역별 고용실태조사』 다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원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을 함으로써 서울 일자리 포털 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1) 서울시 구인광고를 통해 본 청소원 신규 일자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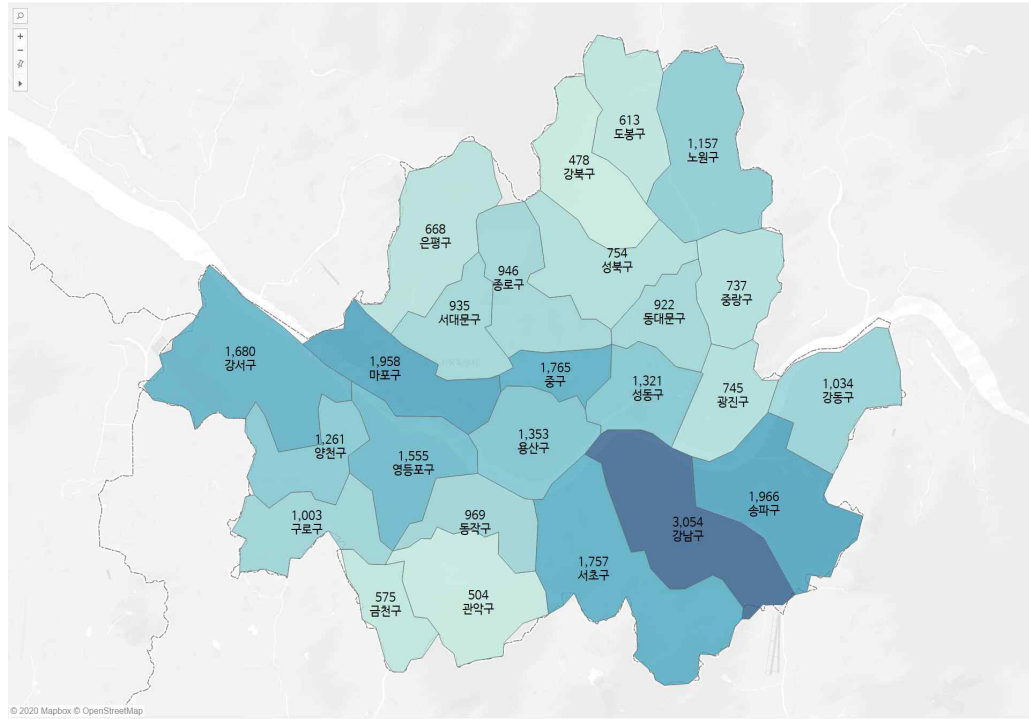
서울 일자리 포털의 채용정보는 일반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업구분, 한국 고용직업분류에 따른 직종, 근무지역 등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급여,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직종에 등록된 구인 광고들 중 직종이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된 구인광고 27,081건을 추출하였다.

아래 <그림3-9>은 구인공고를 통해 본 서울 시내의 행정구역별 작업장 위치를 나타내는데, 강남구가 3,054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송파구(7.3%), 마포구(7.2%), 중구(6.5%), 서초구(6.5%)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강남3구로 통칭되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만 총 6,777개의 환경미화원 일자리 공고가 등록되어 조사기간 동안의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 신규 일자리의 25%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2>는 서울시 청소노동자 구인광고를 년도 별로 나누어 일자리 공고 건수와 평균 임금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의 전체 청소원 일자리 공고는 11,477건으로 전체 조사된 일자리 공고건수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신규 일자리 건수는 급감하여 2018년에는 29.3%, 2019년에는 22.8%의 신규일자리가 등록되었다. 2020년의 경우에는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동안의 일자리 공고만 분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청소원의 신규 일자리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림3-9> 구인공고를 통해 본 구별 작업장 위치



<표3-12> 전체 일자리 공고와 평균 월급

연도	(A)	(B)	(C)	(D)	(E)	(F) 최저임금 미만	
	전체 일자리 공고(건)	전체 공고 월급 평균(만)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 월급 209시간(만)	전년대비 인상률(%)	건	%
2017	11,477	117.2	NA	135	7.3	7925	69.1
2018	7,929	129.4	10.4	157	16.4	5930	74.8
2019	6,188	138.8	7.3	175	10.9	5089	82.2
2020	1,487	140	0.9	180	2.87	1298	87.3
합계	27,081					20242	74.50

<표 3-12>를 보면, 2017년에 새로 등록된 일자리의 평균 월급은 117.2원, 2018년에는 129.4원으로 2018년의 신규 일자리 월급 평균은 전년과 대비하여 10.4%가 증가하였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7.3% 증가하였으며, 2020년 1분기에 제시된 평균 월급은 2019년에 비해 0.9% 증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원의 새로운 일자리에 제시된 평균 월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 그러나, 전년 대비 인상률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다 (C). 각 해의 신규 일자리 평균 월급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 월급과 비교했을 때 청소원의 신규 일자리의 월급 평균은 2017

년에는 최저월급의 86.8%, 2018년에는 82.4%, 2019년에는 79.3%의 수준을 보여 모든 해의 월급이 최저월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월급 대비 월급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월급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만의 신규 일자리 비율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는 신규 일자리가 전체의 69%이었고 2018년에는 74.8%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82.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87.3%의 신규 청소원 일자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F). 이 일자리들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등록되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시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원 일자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고된 모든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시급 근처에서 정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일자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일자리라기 보다는 신규 일자리에서 제시하는 고용 시간이 감소하는 현상, 즉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3-13> 신규 일자리에 나타난 복리후생 항목

항목	공고수	비고
식사제공	2505	밥, 반찬, 라면 등 현물 지원이 혼재 되어 있음
식비제공	102	일부지원 포함
쌀,반찬,부식	333	
연차,휴가	61	명절휴가 포함
임금 외 수당	68	휴가비, 명절 보너스, 명절 선물
교통비	50	
휴게실	29	
기타	77	
합계	3225	중복 포함

위의 <표 3-13> 는 서울시 청소원 신규 일자리에 나타난 복리 후생 항목을 나타낸다. 전체 27,081건의 공고들 중 식사나 식비가 제공되거나 쌀, 반찬, 부식 등의 음식이 제공된다고 명기한 공고는 2,940건 (10.9%)에 불과했다. 또한 연차나 휴가가 제시된 공고는 전체의 61건, 임금외 수당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공고도 68건에 그쳤고, 이 밖에 교통비, 휴게실, 기타 등의 복리 후생 항목 역시 제시된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게다가 우리는 복리후생 각 항목의 공고수를 계산할 때 중복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공고들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고들을 고려하면 실제 이러한 항목을 포함한 공고 건수는 제시된 3,225 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 포털에 등록된 신규 일자리 중에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는 일자리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3,225개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들이 모두 복리후생 항목을 아예 포

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구인 공고를 낸 사용자가 복리후생 정보를 포털에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에서 복리후생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시 공고에 당연히 포함되어 구직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조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2)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고

서울시 일자리 포털의 구인광고는 고용 조건에 대해 상용직/계약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을 뿐, 일자리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직접고용/간접고용 형태나 시간제/전일제를 구분하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인 광고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간접 고용, 시간제/전일제 일자리를 구분하였다. 우선 직접/간접고용 여부를 특정하기 위해 고용주체와 실제 청소원들이 일하게 될 작업장 이름을 비교하여 이 두 가지 항목이 일치하면 직접고용,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고용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일자리 포털에 게시되는 공고이므로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월 기준 최저임금의 90% 이하를 제시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그 이상은 전일제로 구분하였다. 월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하인 신규 일자리는 전체의 72%였다. 이렇게 상용직/계약직, 직접고용/간접고용, 시간제/전일제 여부를 판단한 후, 이 중 상용직, 직접고용, 시간제로 구분된 신규 일자리만 정규직 일자리로, 그렇지 않은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분류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고용형태를 기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낮아 필요에 따라 직접고용/간접고용, 전일제/시간제, 그리고 상용직/계약직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일제/시간제로 구분했을 때 전일제 비율은 36.7% 시간제 비율은 63.3%로 나타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용직의 비율은 64.3%로 계약직의 비율 (35.7%)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한편 간접 고용, 즉 용역 일자리는 78.4%로 직접 고용 일자리보다 훨씬 많았다. 전일제/시간제, 상용직/계약직, 그리고 간접고용/직접고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정규직의 비율은 전체의 95.2%로 신규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압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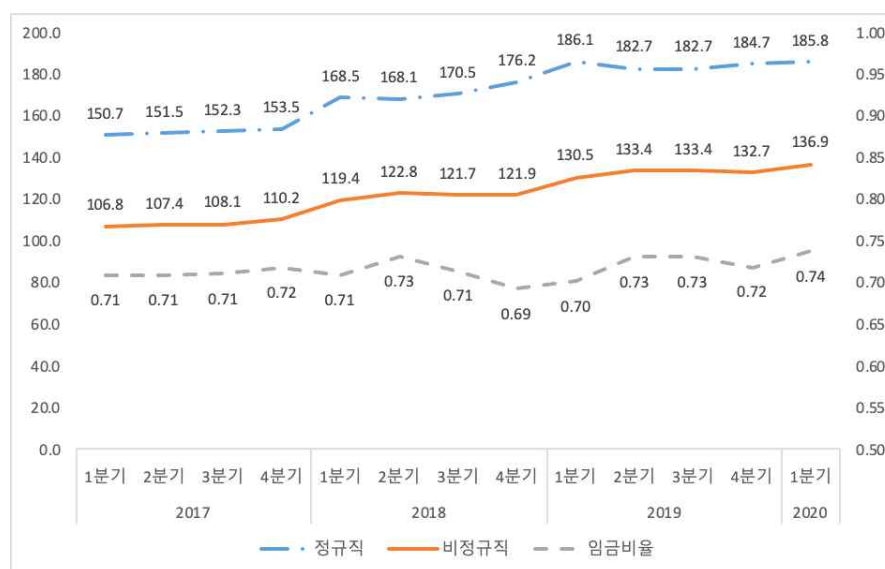
<표 3-14> 환경미화원 신규 일자리 고용형태 (2017.1-2020.3)

고용조건		채용건수	비율 (%)
전일제/시간제	전일제	9,931	36.7
	시간제	17,014	63.3
계		26,945	100.0
상용직/계약직	상용직	19,006	64.3
	계약직	10,539	35.7

계		29,545	100.0
간접고용	용역	23,301	78.4
직접고용	공공	474	1.6
	교육/보육	429	1.4
	병원/요양	709	2.4
	공동거주시설	1,735	5.8
	숙박	400	1.3
	빌딩/상가	1,019	3.4
	주식회사	698	2.3
	중소상공	544	1.8
	기타	401	1.3
계		29,710	100.0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1,297	95.2
	정규직	25,621	4.8
계		26,918	100

아래의 <그림 3-10>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청소원의 새로운 일자리들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모두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최저임금 규정이 강화되어 임금 차이는 노동 시간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직의 임금은 최저임금 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시간당 임금은 큰 변화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인다.

<그림 3-10>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평균 임금 차이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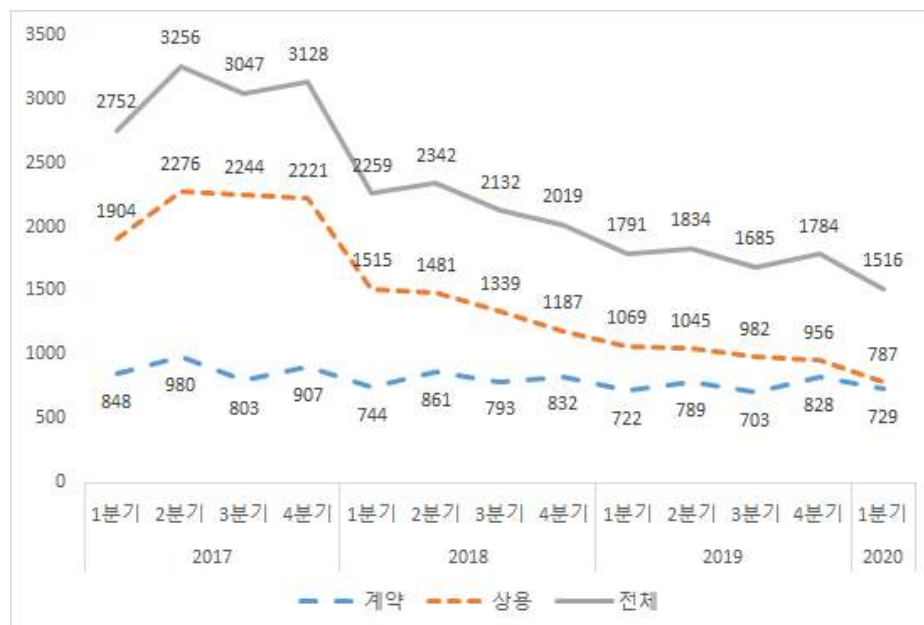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의 맨 아래 점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동시간의 차이로 생기는 두 집단 간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70%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청소직의 신규 일자리 숫자가 어떤 추세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세부 항목인 계약직과 상용직, 전일제와 시간제, 그리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아래 그림 <그림 3-11>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전체 신규 일자리의 추이를 보면,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청소미화원의 신규 일자리 공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1분기 일자리 공고는 총 2,752건으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더 증가하여 한해 11,477건의 환경미화원 일자리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2018년 1분기의 환경미화원 일자리 공고는 2,259건으로 감소하였고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일자리 공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2019년 환경미화원 총 일자리 공고는 7,929건에 그치고 있다. 2019년에도 일자리 공고 감소의 추세는 지속되어 총 6,188건의 일자리 공고가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계절별로 고용 시장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같은 분기별 일자리 추이를 보아도 역시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1분기의 일자리 추이는 2017년 2,752건에서 2020년에 1,516 건으로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무려 45%의 신규 일자리 공고 숫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분기별 일자리 감소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 상용직과 계약직 신규 일자리 숫자 추이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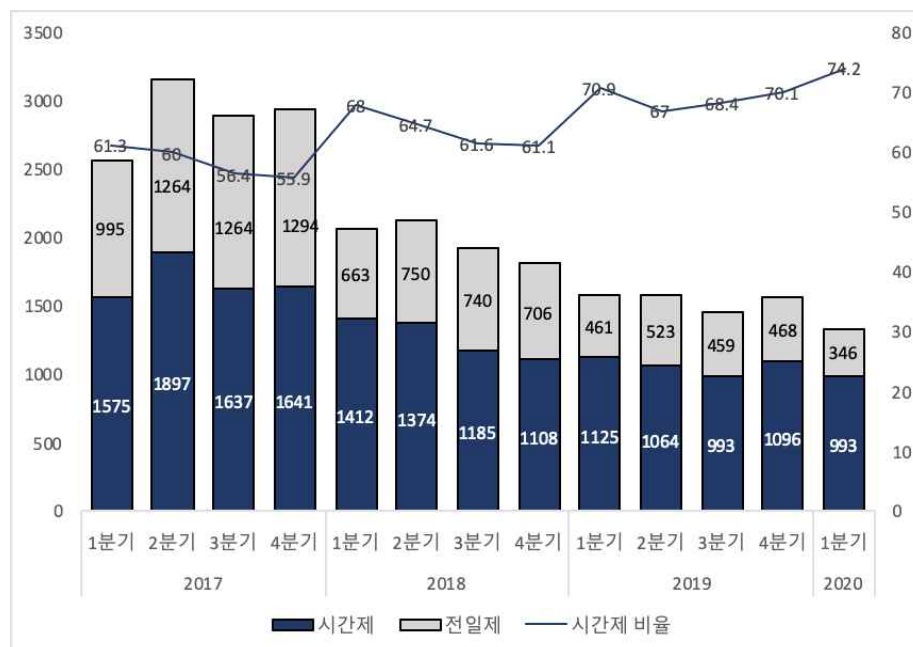


청소미화원의 신규 일자리 추이를 계약직과 상용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³⁾ 2017년 1분기부

터 2020년 1분기까지 이 두 고용 형태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시기 동안 상용직 일자리의 개수는 2017년 1분기에 1,904건이지만 2020년 1분기에는 787건으로 줄어 신규 채용 공고가 무려 60%나 감소했다. 반면, 계약직 일자리는 2017년 1분기 848건에서 2020년 1분기 729건으로 이 기간 동안 신규 일자리 개수가 평균 810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동이 없다.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의 추이를 해석해보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청소원 신규 일자리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이 감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로 설명된다.

한편, 아래의 <그림 3-12>는 서울시 구인공고 포털의 청소원 신규 일자리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비율을 보면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시간제 일자리 비율의 증감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신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 1분기에 전체의 61.3% 가량을 차지하였고, 2018년 1분기에는 68%, 2019년 1분기에는 70.9%, 2020년 1분기에는 7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각 년도의 동일 분기들 간의 시간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같은 추세가 나타나, 신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은 계절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12> 시간제와 전일제 신규 일자리 추이 (단위: 개, %)



요약하면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표 3-1> 참조) 정규직 신규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활동의

3) 원래 신규 일자리 형태의 추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앞서 분석한대로 정규직의 일자리가 5%미만이고 그 비율도 최근엔 더 작아졌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추세를 거의 비슷한 계약직과 상용직의 추세를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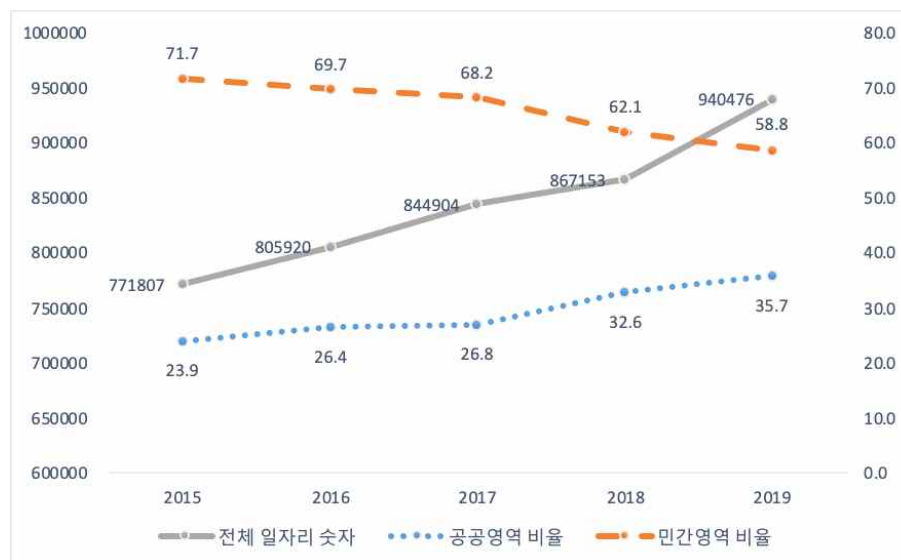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청소원 수요도 늘고 있고 따라서 이 분야의 고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상용직/전일제/직접고용 등의 정규직의 신규 채용은 줄고, 그 자리를 계약직/시간제/간접고용 등의 비정규직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는 해명되지 않고 남아 있다.

3) 전국 자료를 통해 살펴본 청소원 일자리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청소업 일자리의 증가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증가한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래에 나타난 <그림 3-8>은 지역별 고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체 청소원의 일자리가 공공 영역에 속한 것인지 민간 영역에 속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먼저 실선으로 나타난 청소원의 전체 일자리 개수는 2015년 771,80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40,476에 달하고 있다.⁴⁾ 나머지 점선 두 개는 각각 민간 영역(긴 점선)과 공공영역(짧은 점선)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민간 영역의 청소원 일자리 비율은 71.7%였으나 이 비율은 차츰 감소하여 2019년에는 58.8%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공공영역 청소원 일자리의 비율은 2015년 23.9%에서 2019년 35.7%까지 급속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따로 분류하였으나,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간의 일자리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그림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8> 청소원의 전체 일자리 숫자와 공공/민간 영역의 일자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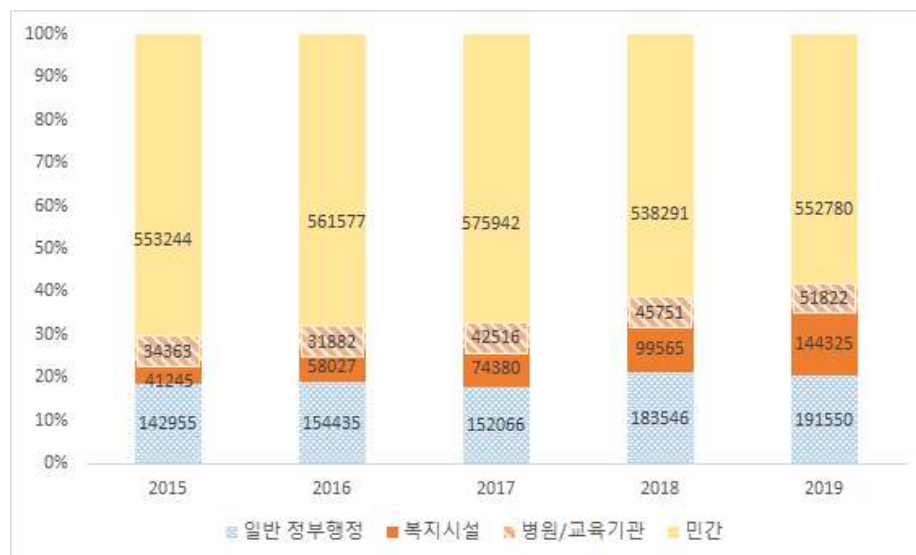


4) <그림 3-8>에 나타난 전체 청소원의 일자리 숫자는 <표 3-2>에 계산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규모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이 일자리들을 공공/민간의 각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청소원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 연도별 일관된 계산을 위해 자료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생긴 차이이다.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증가한 공공 영역의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3-8>을 보면,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분야는 복지시설 운영업 분야로 2015년에는 41,245건으로 전체 일자리의 5.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44,325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청소 및 환경미화원 일자리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거주복지시설 운영업’과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이 포함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서 청소원들이 근무하는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비해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복지시설 운영업의 2-4%) 분류의 편의상 이들을 제외하지는 않았다. 비거주복지시설의 청소업무 종사자들은 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경우로 공공 영역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 행정기관 관련 일자리와 병원/교육기관의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 반면, 민간 영역의 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전체 청소 및 환경미화원 일자리의 71.7%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58.8%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청소원 일자리의 증가는 공공영역, 그 중에서도 비거주 복지시설의 일자리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민간 영역의 청소업 일자리 숫자는 같은 기간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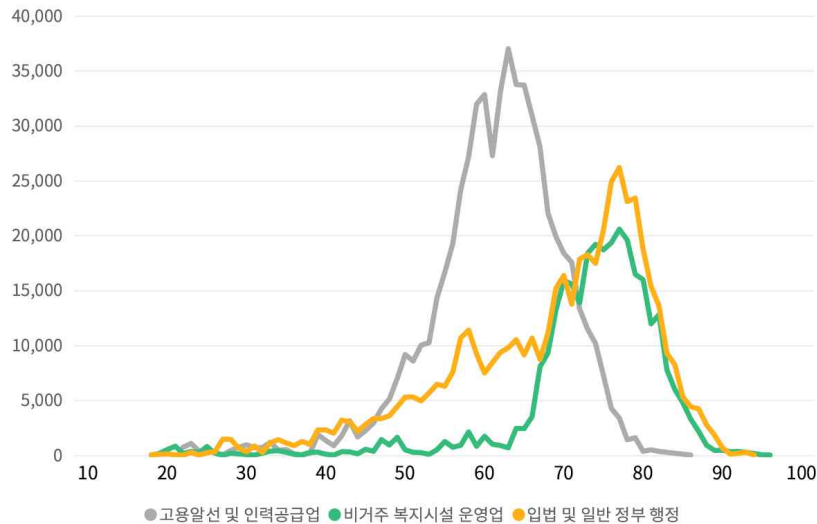
<그림 3-8> 공공/민간 분야별 청소원 일자리, 2015-2019



비거주 복지시설의 청소업무가 국가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일 것이라는 우리의 가정은 아래에 제시되는 자료들로 더욱 그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림 <3-11>는 청소노동자의 산업별 연령별 분포인데, 민간 영역인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종사자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65세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보통 전형적인 민간영역 청소원들의 연령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입법 및 일반 정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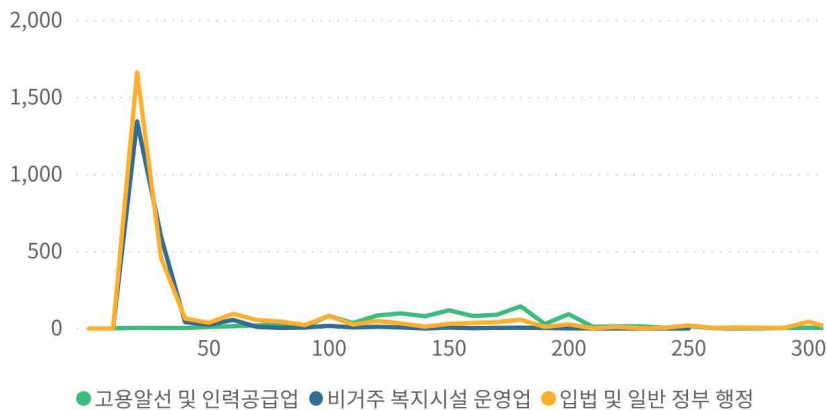
정>은 이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으며 특히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60대 중반에서 급격하게 그 수가 많아지고 78세의 노동자들의 숫자를 정점으로 90세까지 분포하고 있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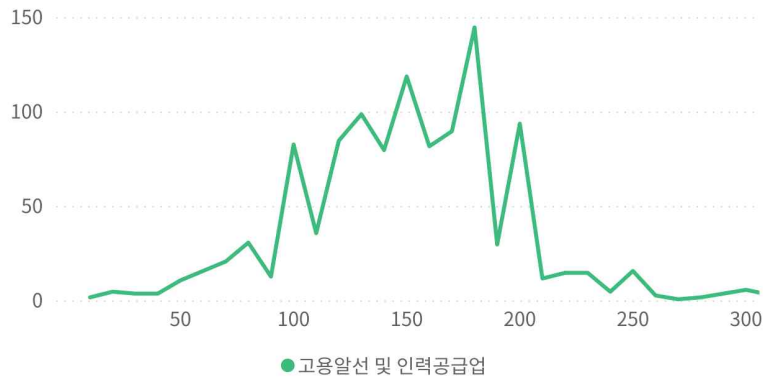
<그림 3-11> 청소 노동자들의 산업별 연령분포



한편, 아래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정부기관 일자리인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영역의 경우 대부분 월 20-30만원에 불과한 초단시간 시간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그림은 민간 영역인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의 임금 분포를 보여주는데, 공공 영역의 평균 임금수준을 훨씬 웃도는 평균치 150만원을 중심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림 3-12> 청소노동자들의 산업별 임금분포 (2019년)





결국 청소 및 환경미화원 일자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민간 영역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공공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청소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일자리의 증가는 주로 공공 일자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부 행정기관의 청소 일자리의 경우 전체 청소업 일자리의 증가에 비해 그리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는 반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 일자리의 증가는 최근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청소업 일자리의 증가는 월 2-30만원 수준의 공공근로 사업 혹은 단기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의 효과라 볼 수 있다.

4장. 새벽, 강남으로 가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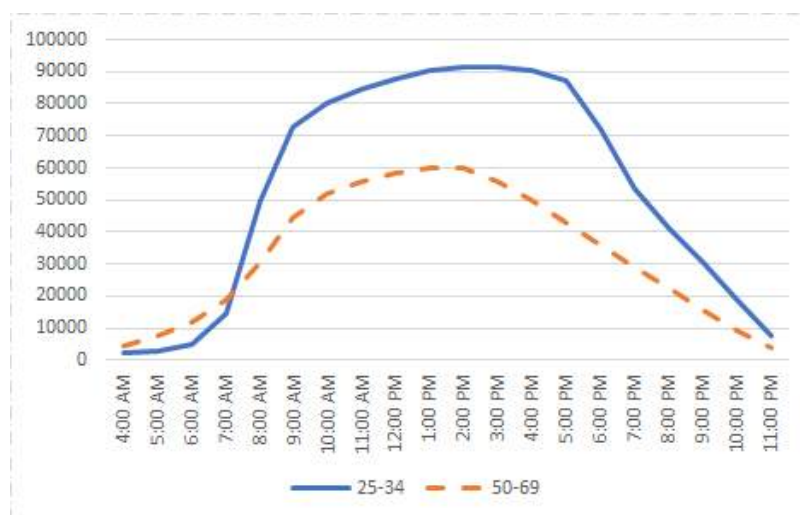
1) 새벽노동을 하는 장년 여성의 시간

연구팀은 2020년 3월, 6411 새벽 첫차 설문조사를 통해 그 버스를 탄 사람들이 50대 이상의 장년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의 노동이 청소, 경비 등의 일이며, 이 노동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후다닥 해치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새벽노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6411 새벽 첫차는 이른 아침, 서울 강남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많은 버스들 중 하나이다. 서울 강남은 새벽부터 사람들을 빨아들인다. 그곳에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과 돈이 모인 곳에는 ‘집적효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과 돈이 모인다. 그래서 서울 강남지역은 더 높아지고, 나머지 지역은 더 낮아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 불균형 성장이 일어나고, 이는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이런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형적인 6411 첫차 승객인 50~69세 장년 여성이 하룻동안 강남·서초구로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시간대별로 분석했다. 또 이를 25~34세 청년 여성과 비교했다. 청년 여성의 범위를 25~34세로 잡은 것은 여성의 경우 통상 대학을 졸업하면 25세쯤 첫 직장에는 들어가고, 이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때가 34세 전후이기 때문이다. 분석 시점은 2018년 5월 9일 수요일 하루이다.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을 분석시점으로 삼았다.

<그림 4-1> 강남·서초구 유입 여성인구의 시간대별 추이



위의 <그림 4-1>을 보면, 장년 여성(50~69세)의 강남지역 유입 패턴은 완만한 언덕 모양이다. 이른 새벽부터 강남지역으로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전 6시면 1만 명(11,764명)을 넘고, 매 시간 1만 명씩 늘어나 낮 12시면 6만 명(58,270명)에 육박한다. 이어 오후 2시에 59,97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유입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최고점을 찍는 오후 2시 이후의 시간은 6411 첫 차 승객들이 ‘퇴근하는 때’라고 했던 시간이다. 좀 더 정밀한 추적이 필요하겠지만, 새벽노동을 하러 강남지역으로 왔던 중년 여성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연령대 여성들의 강남 유입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청년 여성(25~34세)의 강남지역 유입 패턴은 우뚝 솟은 바위산 모양이다. 통상 오전 4~7시 사이의 새벽시간대에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장년 여성이 18,860명인데 비해 청년 여성은 14,880명이다. 그러다가 오전 8시쯤에는 49,761명, 오전 9시 72,782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아마 직장에 출근하는 젊은 여성들이 몰려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오후 3시쯤 91,368명으로 최고점을 찍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유입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데 역시 청년 여성의 퇴근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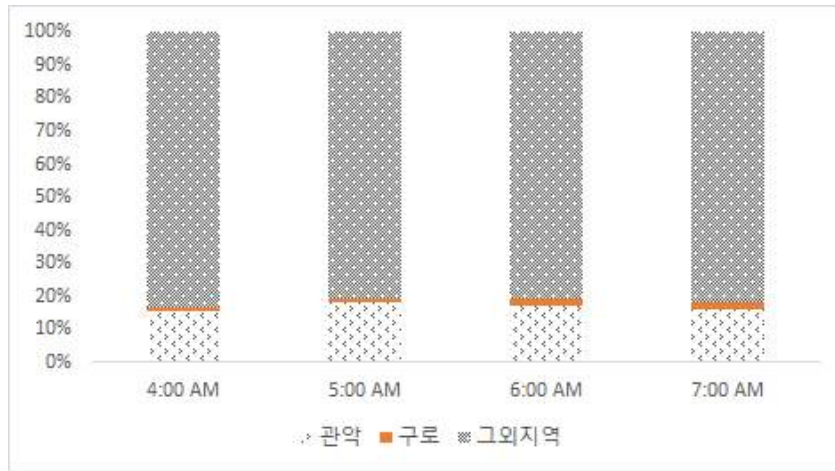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오직 새벽시간대(오전 4~7시)에만 강남지역으로 유입하는 장년 여성이 청년 여성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청년 여성이 더 많다.

강남지역에 직장을 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러시아워(rush hour)는 오전 8~9시이다. 이 시간대에 청년 여성들의 강남지역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장년 여성의 경우 이보다 훨씬 이른 새벽시간에 강남지역으로 들어온다. 아마 이들은 강남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 6411 새벽 첫 차같은 버스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지역의 오전 4시~7시는 ‘장년 여성의 시간’이고, ‘새벽 노동의 시간’이다. 노회찬의 말대로, 이들이 존재했으되, 우리 눈에 그토록 띄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들은 보통의 직장인이 아직 잠자리에 있을 때, 강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빌딩으로 들어서기 전에 구석구석 청소 등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투명인간’이 됐던 것이다.

2) 장년 여성의 거주지

새벽노동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장년 여성들은 어디서 왔을까. 6411 새벽 첫차 승객이라면,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거주지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생활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해 강남구와 서초구로 유입되는 50~69세 장년 여성의 거주지를 분석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6411 첫 차 승객들의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와 인근 관악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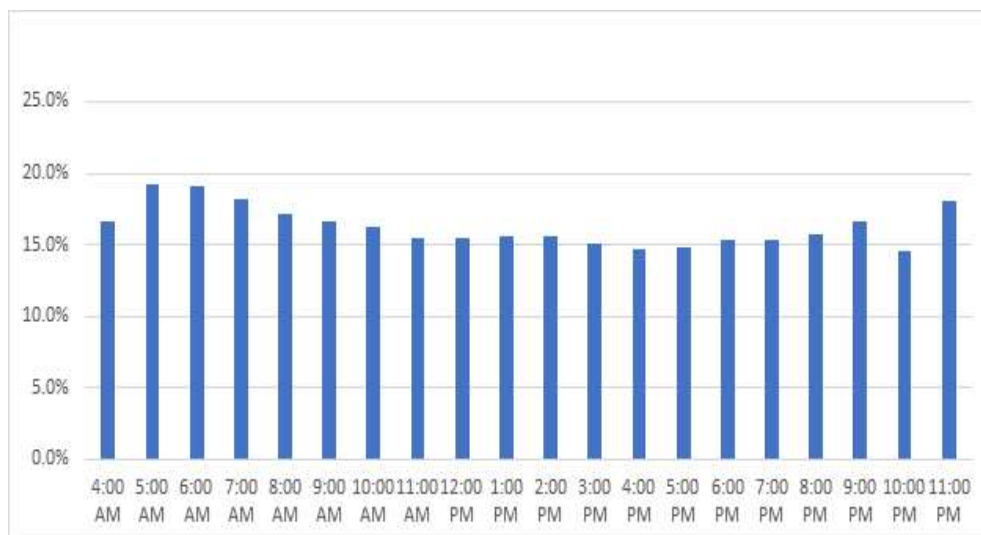
<그림 4-2> 새벽시간, 강남지역 유입 장년여성의 거주지



위의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벽시간대(오전 4~7시)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장년 여성 가운데 구로구 및 관악구 거주자의 비율은 오전 4시 16.7%, 오전 5시 19.2%, 오전 6시 19.1%, 오전 7시 18.2% 등으로 대략 20% 가량이다. 그럼 지금까지 조금씩 그려왔던 투명인간의 정체는 좀 더 분명해진다. 새벽시간대 강남지역으로 들어오는 50~69세 장년 여성은 새벽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5명 중 1명은 구로구와 관악구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새벽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강남지역으로 들어오는 중년 여성 가운데 구로구 및 관악구 거주자의 비율은 대략 15% 안팎이었다 (아래의 <그림 4-3> 참조). 확실히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구로구 및 관악구 거주 중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새벽시간대에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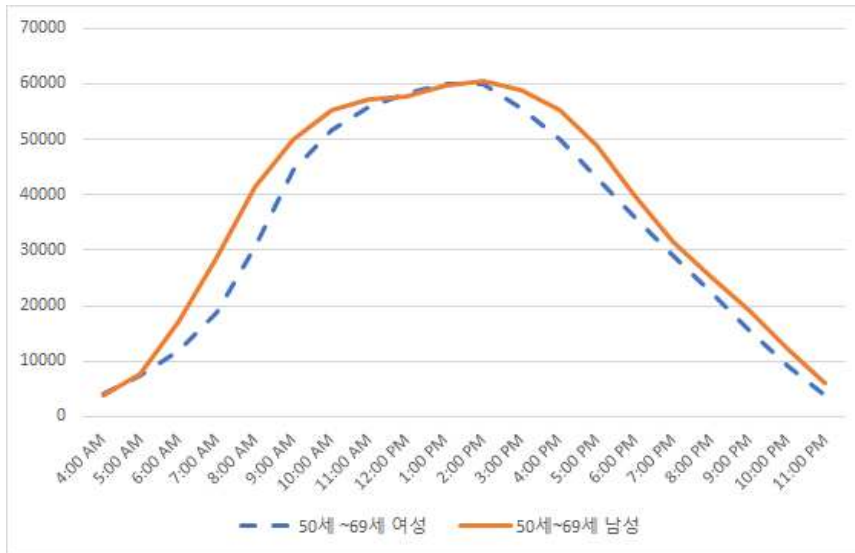
<그림 4-3> 강남 유입 장년 여성 중 구로/관악구 거주자 비율



3) 같은 또래의 남성과 비교하기

강남지역의 새벽시간(오전 4~7시)이 온전히 ‘장년 여성의 시간’이라면, 이들은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의 남성들도 마다하는 새벽 노동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남성들과 비교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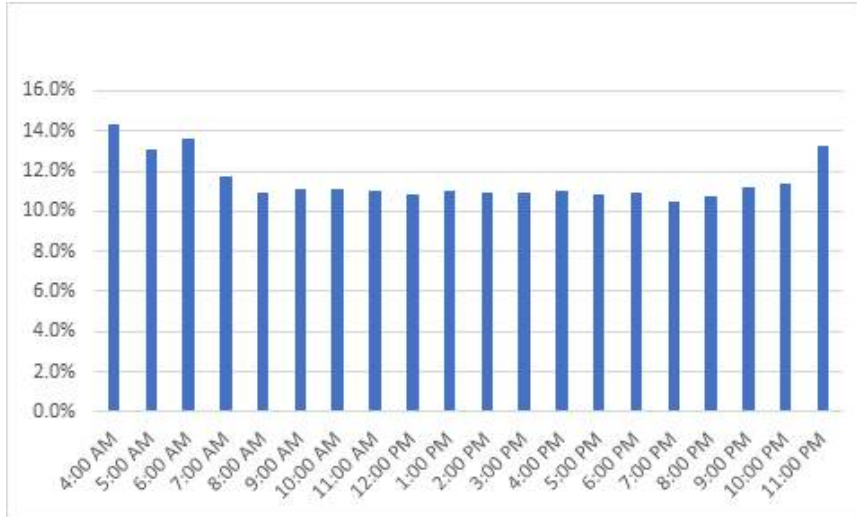
<그림 4-4> 강남으로 들어오는 장년 여성과 장년 남성 간 비교



시간대별로 강남으로 유입되는 장년 여성과 장년 남성을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장년 여성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적었다. 그러나 오전 4시에는 장년 여성 4,233명, 장년 남성 3,882명으로 오히려 장년 여성이 더 많았다. 오전 5시는 비슷했고(장년 여성 7,528명, 장년 남성 7,686명), 오후 6시부터는 장년 여성 11,764명, 장년 남성 17,106명으로, 장년 남성이 확실히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새벽노동이 온전히 장년 여성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남녀불문하고 장년층 심지어 노년층이라도 새벽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역시 말해주는 결과이다.

강남지역에서 새벽노동을 하는 장년 여성의 20% 가량은 구로구와 관악구 거주자였다. 같은 또래의 남성들의 거주지 분포는 이보다는 다양한 편이었다. 구로구와 관악구 거주자의 비율은 새벽시간의 경우 13% 안팎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10% 안팎이었다. 장년 여성처럼 새벽 시간대에 강남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은 공통적이었지만, 지역적 편중은 장년 여성에 비해 덜했다.

<그림 4-5> 강남 유입 장년 남성 중 구로/관악구 거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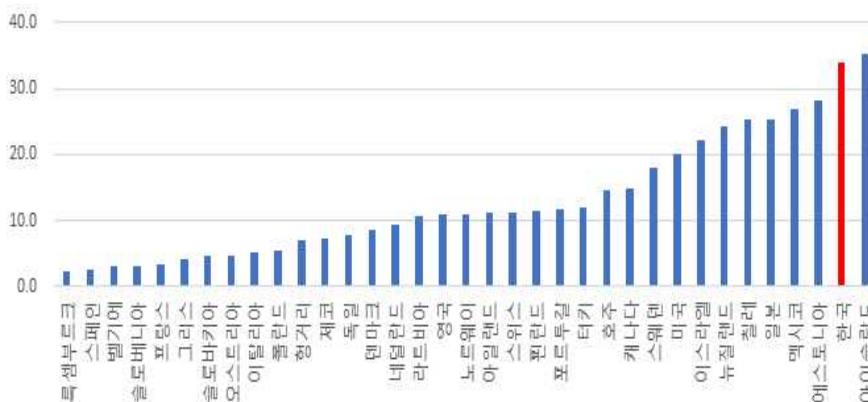


4) 왜 늦어서도 새벽노동을 해야 하나

이번 서울시 생활인구 분석에서 새벽시간대(오전 4~7시)에 강남지역으로 유입되는 장년여성 은 42,385명, 장년남성은 57,482명으로, 하루 평균 합계 99,867명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이란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50대 이상의 장년층 10만 명 가량이 집을 떠나 이미 강남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유입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직장 출근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이 하는 일은 대개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새벽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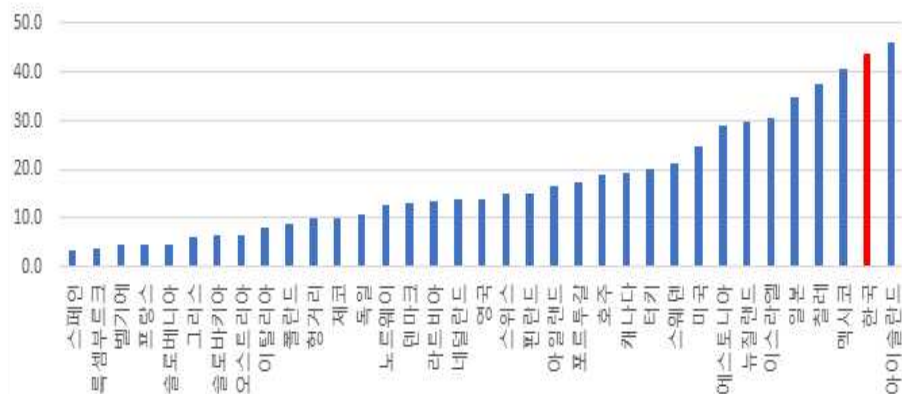
연구팀이 주목하는 것은 새벽노동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유입되는 장년층이 왜 10만 명이나 되냐는 점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 보면, 한국은 34.0%로, 아이슬란드(35.2%)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은 13.1%이다.

<그림 4-6>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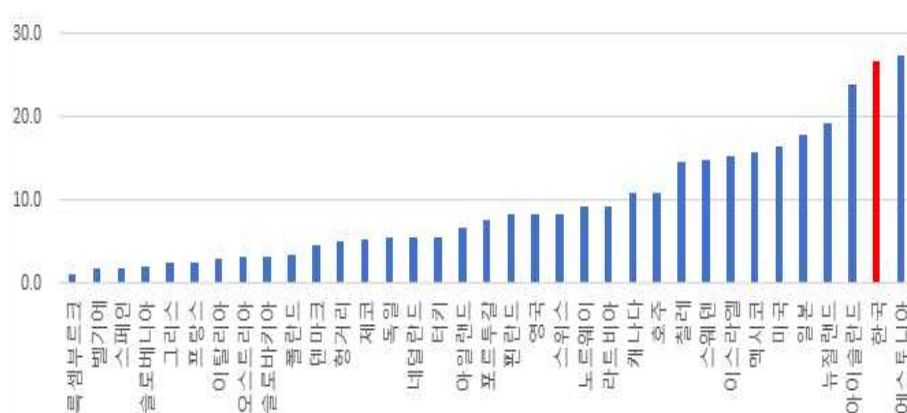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의 경우 한국은 43.7%로, 아이슬란드(46.1%)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은 17.5%이다. 여성 역시 한국은 에스토니아(27.5%) 다음으로 높은 26.7%였으며, OECD 평균은 9.4%였다.

<그림 4-7> OECD국가의 6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4-8> OECD국가의 6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이처럼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남녀불문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한국보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 여성의 경우 에스토니아 뿐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만큼 ‘일하는 노인’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늙어서도 노동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포착됐던, 새벽시간, 서울 강남으로 유입됐던 10만 명 가량의 장년층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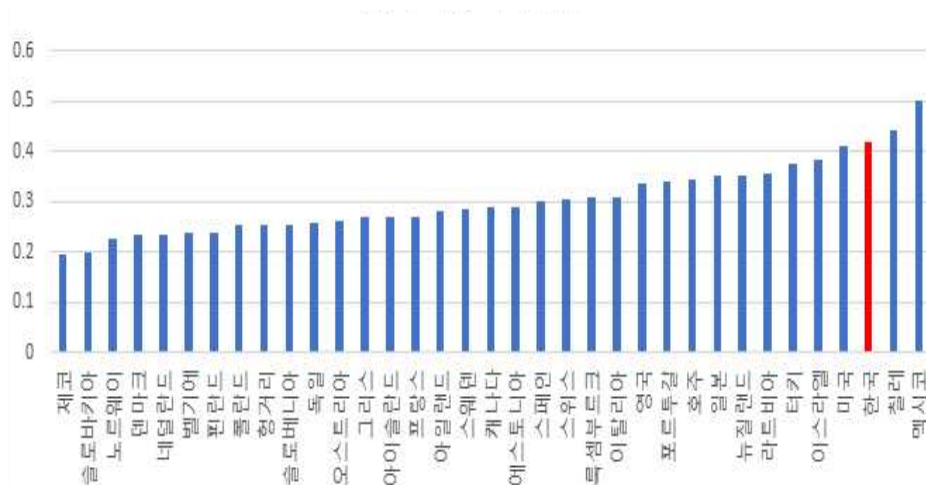
통계청의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담’이 전체의 61.8%로 가장 많았다. 2018년 기준으로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6%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원이었다. 이들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1%에 달했는데,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답변은 이보다 적은 33.9%였다.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많은데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다. 201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인구 전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즉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3.7%에 달한다는 뜻이다. 2016년, 유럽연합(EU) 28개국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라트비아 22.9%, 크로아티아 17.2%, 에스토니아 16.5%였다. 이들 3개국은 유럽 안에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지만,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노인층의 소득불평등도 매우 심각하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세후 가처분소득 기준)로 측정한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는 0.419로, 멕시코(0.5), 칠레(0.441) 다음으로 높은 세 번째였다. OECD국가의 평균은 0.304였다.

<그림 4-9>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우 65세 고령층의 지니계수가 인구 전체보다 더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는 0.355인데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는 0.419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고령층에서 더욱 악화된다. 이처럼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인구 전체보다 높은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 미국, 멕시코 등 총 12개국이다. 이 가운데 두 지표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이른 시간, 서울 강남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노회찬이 말한, 6411 새벽 첫차를 타는 사람들이다.

<표4-1> OECD국가의 인구 전체 지니계수와 65세 이상 고령층
지니계수

국가	65세 이상 지니계수 (A)	전체 지니계수 (B)	A>B 인 경우
체코	0.194	0.249	
슬로바키아	0.2	0.22	
노르웨이	0.226	0.262	
덴마크	0.233	0.261	
네덜란드	0.235	0.285	
벨기에	0.237	0.264	
핀란드	0.24	0.269	
폴란드	0.254	0.275	
헝가리	0.255	0.289	
슬로베니아	0.256	0.243	O
독일	0.259	0.289	
오스트리아	0.263	0.275	
그리스	0.268	0.319	
아이슬란드	0.27	0.257	O
프랑스	0.271	0.292	
아일랜드	0.28	0.295	
스웨덴	0.287	0.275	O
캐나다	0.291	0.31	
에스토니아	0.291	0.309	
스페인	0.3	0.333	
스위스	0.306	0.299	O
룩셈부르크	0.308	0.327	
이탈리아	0.31	0.334	
영국	0.337	0.366	
포르투갈	0.339	0.32	O
호주	0.346	0.325	O
일본	0.351	0.339	O
뉴질랜드	0.354	0.349	O
라트비아	0.355	0.374	
터키	0.376	0.404	
이스라엘	0.382	0.348	O
미국	0.411	0.39	O
한국	0.419	0.355	O
칠레	0.441	0.46	
멕시코	0.5	0.458	O

V. 연구를 마무리하며

2019년 11월, 6411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것이 이번 연구의 출발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8년 전,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했고, 우리는 새벽 시간대에 구로에서 이 새벽버스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가 말한 대로 정말 강남 빌딩숲으로 청소하러 가는 사람들인지 궁금했다.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강남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을 투명노동자라고 표현했던 노회찬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그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했다. 그래서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고 6411 버스를 직접 탑승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6411 첫차는 두 대이며 이 두 대의 버스들 모두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점,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6411 첫차가 개포동 회차 지점쯤부터는 승객 없이 텅 비어 차고지로 돌아간다는 점 말고는 우리는 6411 버스와 첫 승객에 대해 여전히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전면적으로 그리고 깊숙하게 이 주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들을 직접 만나 하루의 삶을 구성해보고, 그들의 노동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3차례에 걸쳐 새벽 첫차에 올라 승객들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그들의 실제 삶을 알아보았고, 전국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하였으며,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일자리 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의 주변에서 서울의 중심으로 유입되는 인구들, 그리고 그들의 연령대별 움직임이 어떠한지도 조사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고서야 청소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 시내에 또 다른 첫차들의 탑승객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인천에, 부산에, 광주에, 또 다른 많은 도시들에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수 많은 투명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연구진이 본 연구의 사전 조사를 위해 6411 첫차에 처음 탑승했던 것은 2019년 12월이었고, 설문조사를 위해 다시 여러 차례 버스에 탑승 했던 것은 2020년 3월이었다. 그 시간 사이에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겼다. 우리는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 첫차 탑승객이 12월의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화상 수업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서울 시내 전체가 종일 한산하던 날에도 청소 노동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출근을 위해 만원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이 글은 그렇게 감염병의 두려움까지 이겨내면서 새벽버스를 타야 했던 청소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보고서이다. 6411 버스의 첫차 탑승객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그들과 그들의 노동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 역시 제시하였다.

1. 6411 새벽 첫차를 타는 사람들은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 6411 새벽 첫차를 타는 승객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 청소 노동자들로, 6411번 버스를 포함하여 서울에서만 이리 첫차 탑승객이 매일 최소 2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들은 주로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로 출근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출퇴근과 평균 1-2시간의 부불노동을 하고 있다.
- 6411 버스의 첫차 탑승객들은 새벽 3시 20분경에 하루 시작을 위해 기상하여 4시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고 5시 44분에 직장장에 도착한다. 9시간 정도 직장장에서 보내고 3시 41분에 집에 도착하여 가사노동과 휴식,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8시 37분에 취침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새벽 시간 출근 때문에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2. 2011년에 비해 2017년,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더 열악하고 가난해진 노동현실

- 청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이 전체 청소노동자들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시간제가 많아 월 평균 수입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2011년에 비해 2017년에 큰 폭으로 늘었다 (19% → 28%)
- 청소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고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청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1.1세 (전체 노동자들 평균은 45세)이다. 청소업 내에서도 고령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과 월 평균 수입이 낮아진다. 특히 연령 집단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지 않아 청소업 내부에서도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 65세 이상의 청소원들 중 43%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 거주하는 이들의 평균 임금은 107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청소노동자들 가구가 저임금의 수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빈곤 가구의 증가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3.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신규 청소 일자리

- 서울시에 등록된 청소원의 신규 일자리 숫자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상용직 신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계약직 일자리는 변화가 없어 신규 일자리의 감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 신규 일자리 조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 인상률에 비해 평균 월급 인상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 비율도 2017년 69%

에서 2020년 87%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제, 간접고용,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이 전체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4. 최근 청소업 일자리의 증가는 주로 공공 근로 성격의 저임금의 초단시간 일자리

- 청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취업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150여개 직업집단 중 6번째로 큰 규모이다.
- 보조 자료를 통해 최근의 청소업 전체의 일자리 증가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청소 및 환경미화원의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대폭 감소하였고,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등의 공공 영역에서 대폭 증가하였는데, 비거주복지시설의 청소업무 종사자들은 주로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경우로 공공 근로 일자리라 볼 수 있다.
- 이 일자리들은 월 20-30만원의 저임금/초단시간 일자리로, 최근 청소업의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이러한 저임금 일자리의 대량 양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종합해 보면, 청소업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상승 등의 열악한 고용조건을 갖고 있으며, 최근 청소업 일자리는 초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청소업 전반의 고용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전의 상용직 일자리는 신규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정책제언

1) 100원 버스 도입

새벽 4-5시에 첫차를 탑승하는 인구는 서울에서만 대략 23,000~30,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조할인 적용, 960 원의 요금을 매일 납부하고 있고, 이 요금도 곧 30%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한 달간 20일 출근한다고 볼 때 이들은 매달 2만원 가량을 출근 교통비로 지불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이다. 서울시에서 4-5시에 버스에 탑승하는 이들에게 1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100원 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일 년 약 50억 가량의 예산으로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2) 구인공고의 개선

현재 서울시 구인공고에 나타난 문제점은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공고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상호, 고용자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사업자번호까지 제공해야 한다.
- 근무시간을 '협의'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주당 출근일과 주당 최소/최대 근로시간, 야간 및 교대 근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93조 취업규칙 중 상시 공개가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이 알선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구직자들에게 구인공고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받아 감독하고 기록,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서울시 일자리 포털의 구인광고 자료의 근무조건을 보면 경비업으로 의심되는 청소업이 있는데, 경비업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를 시키기 위해 청소업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3) 9시 뉴스를 보는 삶을 위해서

국제암센터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그만큼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새벽 3시20분에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재충전하기 위한 제대로 된 휴식조차 갖기 쉽지 않다. 이들의 새벽노동은 남들 눈에 띄지 않을 시간에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으로堂堂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침 7시 이전의 청소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게다가 4시에 새벽 첫차를 타는 이들은 직장에 5-6시 사이에 출근하여 아침 청소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원들의 대기시간을 늘이고 있다. 청소 시작 시간을 아침 7시 이후로 정하고, 적어도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시작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화장실이나 건물 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 청소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에 ‘청소중입니다’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그들이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준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같은 곳으로부터 청소 시작시간 제한과 청소 공간 알림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조례로 정하고,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4) 고용조건 개선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의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의 개선일 것이다. 청소업은 우리나라의 150여개의 업종들 중 6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갖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다. 게다가 최근 증가해온 청소업 일자리는 상당부분 초단시간의 공공근로 일자리, 시간제/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이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2010년 이후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고용 조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청소업을 포함한 많은 단순 노무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강한 만큼 최저임금의 합리적 책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혜자(2014), 「청소 및 경비직 고용규모, 일자리 특성과 정책과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 16차 회의발표자료.

권혜원, 권현지, & 김영미. (2016).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 산업관계연구, 26(2), 111-139.

강승복, 2011 "청소용역 서비스업의 근로실태." 노동리뷰, 2011년 10월호, pp. 92-108

조혁진. (2017). 시설관리서비스산업의 노동의 특성과 작업장의 사회적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대학사업장 청소·경비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3(3), 177-216.

이승윤, 서효진, 박고은. 2018.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산업노동연구 24(2): 247-291

조돈문. 2007.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및 생활 실태 분석”. 사회과학연구 23:5-41

Kim, J. Y., Lee, J., Muntaner, C., & Kim, S. S. (2016). Who is working while sick? Nonstandard employ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absenteeism and presenteeism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9(7), 1095-1101.

신희주. (2018). 무엇이 아픈 노동자들을 출근하도록 만드는가? 직업환경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4(3), 35-71.

이주희. (2011).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21-26.

신경아 (2014).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30(1), 81-112

성재민,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월간노동리뷰, 2014년 6월호, 2014.

김수현. (2015).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에 대한 연구: 분위별 임금격차 양상. 사회경제평론, 28(3), 119-154.